CC BY-NC-ND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VOL.3 2023

커버스토리

4인 전문가 대담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방향은?

기획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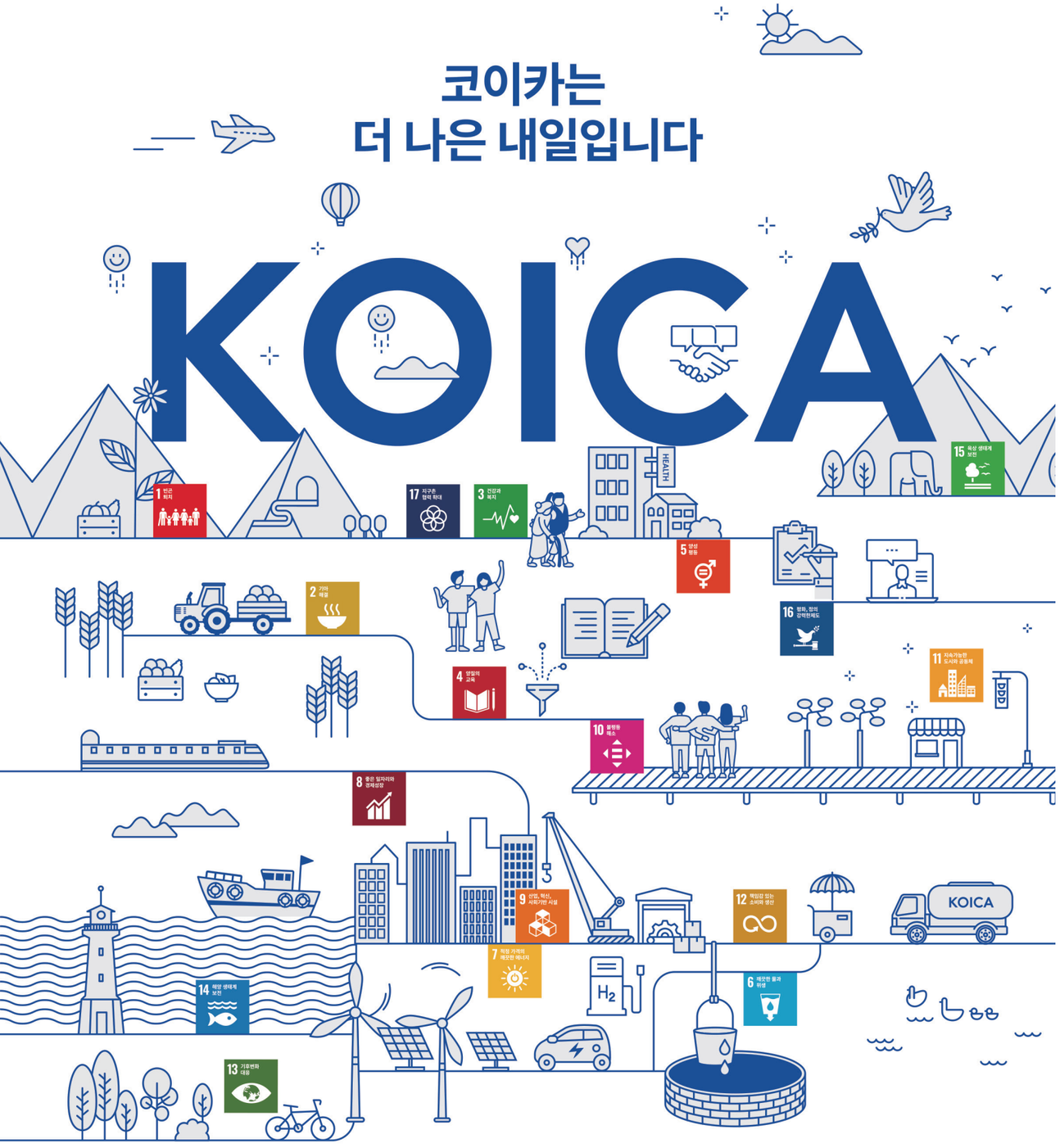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

인터뷰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급파된 KDRT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CONTENTS



서문

05 **글로벌 복합위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커버스토리

06 **4인 전문가 대담: 첨예화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획 특집

10 **KDRT, 절규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이름이 되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인도적 지원 나선 대한민국

14 **한눈에 보는 세계 주요 재해·재난·전쟁 지도(2001~2023)**

16 **코이카-USAID 한·미 양국 개발협력기관 든든한 공조**
필리핀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 강화 사업

18 **라오스 여성들이 앞장서는 불발탄 제거 사업**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21 **개발도상국 돕고 환경도 살리는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업무협약(MOU) 체결

22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 견인하는 지뢰 제거 사업**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 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

기고

24 **위기가 초래한 이동성 및 취약성**
페피 키비니에미 시딕·크리스티나 몰리(IOM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28 **직접적 지원, 지속적 회복, 장기적 재편: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부터 시작!**
대니얼 부쉬·에바 마리아 가이거(GIZ 우크라이나 사무소)

31 **복합위기 시대 우리 개발협력의 역할**
남청수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과장

기획 특집

3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의 일상화 속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한다**
ABC 프로그램(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기고

36 **글로벌 중추 ODA 공여기관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8 **ODA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기획 특집

40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글로벌 복합위기 "재난, 대응하지 말고 대비하라"**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인터뷰





사업 리뷰

44 지속가능한 물 공급·관리를 위한 코이카의 노력
물 분야 중기 전략 2021~2025

기고

47 점·선·면, 원헬스 그리고 난민 포용을 통한 코이카 페루 보건의료 사업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 소장

50 파리기후변화협약 같은 국제적 약속이 절실한 물 관리 분야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사업 리뷰

52 전통 물 공급 시스템 복원, 실향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응원
아제르바이잔 IOM 물 공급 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 사업

54 나라가 발전하려면 아이들 건강부터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 사업

기고

56 수원국의 역사와 문화를 수호하는 사업, 문화유산 ODA
전범환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 단장

사업 리뷰

58 전통 문화유산과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현대식 박물관의 탄생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60 케냐 극빈층 장애 아동 자립 다각도 지원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 사업







수기

63 코이카와 나, 어쩌면 필연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수기

기관 소식

64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
'지속가능한 미래' 공유하는 ODA 랜드마크

65 2017~2021년 코이카의 지원 규모 알아보기
한눈에 보는 사업 실적

66 KOICA NEWS 모아보기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글로벌 복합위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긴 터널 같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지만,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분쟁의 확대는 난민 증가와 공급망 악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 전대미문의 위기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등으로 악화된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 위기가 다층적으로 얽힌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위기들이 서로 악영향을 끼치고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MAGAZINE KOICA〉 3호의 주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으로 정했습니다. 코이카는 「중장기 경영목표(2023~2027)」 16대 전략 과제 중 첫 번째를 '협력국 복합위기 대응 및 평화구축'으로 선정하고, 긴급구호·물자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과 기후·분쟁·감염병·식량 등 다면적 위기에 대응하는 개발협력 사업,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와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지난 3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에 대응해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신속히 파견, 다른 나라 구조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구조작업을 훌륭히 완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시민단체(CSO)들과 협력해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 장비, 지뢰제거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이카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태평양 지역 주요 개발 현안인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저지대가 많은 태평양 도서국들을 위협하는 만큼 코이카는 이와 관련한 사업들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보건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대상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에 진단 기술, 예방, 통제, 치료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향후 협력국이 스스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이 난민, 불발탄 사고, 교육 접근성 악화, 젠더 기반 폭력(GBV)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코이카는 이러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코이카의 협력국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 사업, 성과 등의 상세 내용은 이번 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많은 시련과 역경에 도전하며 지금까지 번영해 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인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협력이었습니다. 코이카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지난 30여 년간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및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민삼 드림

4인 전문가 대담

첨예화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국제사회의 위기는 '복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직면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비롯해 전쟁의 위험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졌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가능한 독립적 위기가 아닌, 복합적 위기라는 점이다. 다음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관해 전문가 4인과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담에 참여해주신 분들

- **최창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은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이동현** (前)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장 (現) 가나사무소장



최근 닥친 다양한 글로벌 위기는 복합성, 연결성, 동시성, 다양성, 무차별성 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정의와 그 문제점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글로벌 복합위기'란 여러 위기의 결합을 뜻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기가 또 다른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예측은 물론 대응이나 사후 수습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복합위기는 일종의 '현상'을 넘어 말 그대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디지털 전환, 기존 패권 구도에 따른 정치·경제적, 기술적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환의 시대 속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과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ESG 전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또한 위기라기보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즉 대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위기 이후에 또 다른 기회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다.

김은주 올해 초부터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말이 각종 미디어에서 유행어처럼 언급됐다.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작은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부터이다.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2~3년이지만 경제·사회 위기는 더 오래갈 것이라고 봤다. 올해 종식 선언은 했지만, 그 영향은 정치·경제·사회에 여전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특징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경험이 협력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였다면, 현재 위기는 선진국과 협력국이 동시에 겪고 있어서 어렵다.

박경렬 '글로벌 복합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불확실성이 확실해졌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나 국제정치·경제 역학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급속한 기술 변화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학기술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리스크를 함께 가져온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반면에 그에 대응하는 사회의 규범과 제도, 법은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pacing problem'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글로벌 협력 역시 중요하다.

이동현 위기에는 반드시 피해가 따른다. 국제개발협력 집행기관인 코이카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동안 글로벌 위기들을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발휘해 온 선진국들 또한 현재의 '글로벌 복합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동시에 위기가 초래하는 피해는 취약계층, 취약국가, 만성적 거버넌스 불안을 겪는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재원 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결국 민간, 즉 기업의 참여가 중요해진다.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교란,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 간 경쟁 격화 속에서 규범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신흥공여국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규범과 질서를 강조하는 파트너십을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글로벌 위기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며, 거버넌스 붕괴를 막을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창용 교과서적인 국제개발협력은 빈곤·보건의료·성차별·교육 등의 문제에 있어 국가 단위를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복합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내부 위기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조차도 국가 이익추구의 한 수단이 되었고,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경렬 교수

▶ 해 공공재 활용 확대를 주장한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목적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합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코이카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국제개발협력 모델은 순수성이나 재원의 규모에 비해 협력국 입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것은 사실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 그리고 한국의 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상대적 친화성이 있으므로 목표 불일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후에 등장할 글로벌 의제를 준비하고, 사업 우선순위 등을 다시 한번 글로벌 맥락에서 검토해 집행 역량, 나아가 리더십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동현 안 그래도 포스트 SDGs(post-SDGs) 시대를 상상한다면 어떤 관점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다. 오는 9월 뉴욕에서 2023 SDG Summit이 열리는데, 2030년까지 SDGs 달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다시 한번 SDGs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다자간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새로운 신흥 공여국이 등장하면서 방법론을 공유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창용 교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슈다.

김은주 DR콩고, 수단,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은 실제로 전쟁을 겪고 있지만 도움이 절실한 취약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또한 지정학적 갈등에 종속되는 상황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SDGs가 8년 차가 되면서, 반환점이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 이르긴 하지만 곧 post-SDGs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한국 또한 국제사회 동향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박경렬 현 상황은 거버넌스 붕괴가 아닌 거버넌스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무역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구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규범과 가치의 충돌은 개발협력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OECD 주도의 원조 효과성 논의가 있었다. 2011년 부산을 끝으로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가 출범한 이후로는 투명성, 원조 조화 등 당연시 여기던 원칙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도전하는 목소리가 생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참여, 무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아 온 것도 규범의 진화에서 볼 필요가 있다. ODA(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가 협업하는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올해는 2030년까지의 목표인 SDGs의 반환점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모든 SDG가 달성이 어려운 시점이다. 그동안의 SDGs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올 9월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총회에 어떻게 담길지, 새로운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논의는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OD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분야 혹은 대응 전략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코이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은주 2010년 이후 많은 기관이 ODA에 동참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ODA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ODA 체계 및 집행 효율성 강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적 요소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사업 기획 단계만 2년 넘게 걸린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단년도 예산 체계상 한계가 있지만, 글로벌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타국 사례 중 독일에서는 '전환기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긴급 인도적 지원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 사이에 위치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빈번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의 질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각 협력 ▶▶

▶ 국내에서 분야별 공여국 회의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야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지 상황을 본부에 잘 알리면서 신속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창용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발행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보고서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 재원의 규모, 우선순위, 정책 조정, 성과 및 측정 영역에서 마셜플랜(Marshall Plan)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공여국이 복수이고, 민·관·국제기구 등 여러 공여 주체들이 참여한다. 지원의 출처가 다양한 상황에서 각 공여국 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필요하고 타당한 논의이더라도 하나의 집합으로 모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국익에도 부합하고, 국격을 끌어올리며, 국제사회 어젠다(agenda)와도 일치하는 ODA를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코이카를 비롯한 선도적 개발협력기관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유연하고 유기적인 대응 또한 강조하고 싶다. 개발협력은 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자원 투입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정확한 인풋과 아웃풋에 기반한 무리한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도 불과 40-50년 전의 역량을 생각해보면,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나 훗날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 현재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기대수준과 국가 비전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개발협력이다.

박경렬 코이카는 개발협력 분야의 지식의 보고로서 역할이 크다. 자원봉사자와 지역전문가 등 향후 국제사회 진출의 토대가 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젊은 인력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ODA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본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코이카 협력요원으로 탄자니아에 다녀왔다. 몇십 년 만에 찾아 온 동아프리카 최악의 가뭄 시기에 물도 전기도 부족한 마을에서 현지인 분들과 하나가 되어 일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보다 소중하다. 후에 국제기구 현장에서 근무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개발협력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융합적인 사고, 현장과 이론의 조화, 다양한 분야의 지식, 무엇보다 현지에 대한 존경과 섬김의 자세가 핵심이다. 공여국으로서는 우리의 협력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협력 분야와 중점협력국을 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다.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협력국의 위치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디지털 분야는 데이터 공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강점도 있어 몇몇 선진 공여국처럼 국가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은주 교수

에 디지털 전략을 따로 포함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향후 몇 년간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팬데믹 기간 중의 양적완화로 인해 개발협력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OECD DAC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 ODA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동현 전략이란 결국 우선순위인 것 같다. 재원이 100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이는 다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활동기관이 있다. 다양한 행위자와 협력기관 사이에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킬 계획 수립은 쉽지 않아서, 결국 균등한 재원배분이 이뤄진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표현이 SDGs가 아닌가 싶다.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코이카 또한 긴급 대응과 장기적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을 고민 중이다. 내년쯤엔 가시적인 결실이 있길 바란다. 한편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도 나섰다. 국제사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코이카의 역량이 집약된 사업 현장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K


코이카 이동현 가나사무소장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인도적 지원 나선 대한민국

KDRT, 절규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이름이 되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 지대에서 지난 2월 6일(현지시각)에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휩쓸고 간 현장은 참혹했다.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가족을 잃은 현지 주민들의 절규와 이재민의 조급한 피난 행렬이 뒤엉킨,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 142명(선발대 3명, 본대 1진 118명, 본대 2진 21명 등)을 현지에 급파했다. KDRT는 국제사회와 발맞춘 인도적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구호 활동을 통해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성과를 남기고 2월 23일에 복귀했다. 코이카는 KDRT의 사무국으로서 구조대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당시 구조 현장 상황을 김민종 팀장, 강해리 대리, 김민지 대리, 류선길 대리, 이찬휘 대리, 백주영 전임 등 코이카 소속 KDRT 대원들의 이야기로 들어본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의 모습

처음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어땠나요?

강해리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한 지 약 48시간 뒤인 2월 8일 오전 6시 57분에 저희 KDRT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곧장 구조 활동 지역인 하타이 안타키아로 향했어요. 하지만 위험 지역을 빠져나오려는 이재민들의 피난 차량들로 이동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숙영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도착 첫날 둘러본 지진 피해 현장은 처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심각했어요. 모든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건물 잔해들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유가족들이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 66 아비규환의 현장,
> 구조 첫날 생존자 5명 구조 성공

구조 작업 첫날부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지 숙영지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우리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을 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 우리 대원들이 타고 갈 차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현지 주민들에게 차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흔쾌히 자신들의 차량을 빌려주고 심지어 운전까지 대신해 주겠다고 했어요. 본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구조 작업 첫날 그렇게 많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했을 거예요.

첫날 5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죠?

김민종 네, 2월 9일 목요일 오전 5~11시 생존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숙영지에 막 도착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을 하러 떠났고, KDRT 사무국을 담당한 저희 코이카 직원들은 당시 숙영지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지쳐있던 상황인데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찡하고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생존자를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 숙영지에 남아있던 구조대원들도 모두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KDRT 사무국은 유엔공동조정센터(UCC)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생존자 구조 사실을 알렸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줬어요.

이틀 뒤인 2월 11일에 추가로 3명의 생존자를 더 구조했습니다. 생존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긴 시점에 구조해 현장에서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강해리 생존자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그라질 때쯤이라 생존자 구조 소식에 UCC 회의에서도 크게 박수를 받았어요. 이때 구조된 3명 중 65세 여성도 있었는데, 제가 이분의 생존 제보부터 구조 상황까지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여성은 건물 붕괴 현장에서 남편과 껴안고 있던 상태로 발견됐어요.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남편은 이미 사망해 사체 경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했지만, 피와 체액이 돌지 않는 압착증후군이 있어 바로 구조하기보다는 피와 체액이 어느 정도 돌 수 있게 수액을 먼저 주사했습니다. 바로 구조하면 쇼크가 올 수 있었거든요. 여성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 해서 구조하는 데 3~4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생존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옮긴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지요.

구조 활동 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강해리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들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어느 부모의 요청이었어요. 부모는 지진이 났을 때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은 탈출하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지진 발생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아파트 구조물 틈으로 그분들의 아들로 보이는 소년 시신을 확인했지만, 작은 충격만 가해도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구조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부모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구조 장비만 빌려주면 자신들이 들어가서 직접 시신을 수습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그게 힘들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며 울먹이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자주 벌어져 다른 대원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 66 KDRT의 세계적 구조 역량,
> 다른 구조대서 협업 요청도

코이카는 이번 KDRT 파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백주영 코이카는 KDRT 사무국을 담당했어요. 이번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사무국은 구조팀과 의료팀이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예산 관리, 대외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인력(대사관, 언론, 현지 봉사자 등) 관리, 대원 입출국 관리, 물류 조달, 국제구호대와의 정보 수집 등 모든 사무적인 부분을 조율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직접 구조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 8명, 시신 수습 19구라는 성과를 거두고 복귀했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와 비교하면 KDRT의 성과는 어떤 편인가요?

김민종 공식적으로 구조 인원이나 성과에 순위를 매긴 자료는 없다고 알 ▶▶

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구조대가 생존자나 시신 수습 내용을 보고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당시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전체 국가 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생존자를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나라도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처음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 50개 팀이 활동했지만 우리가 철수할 때는 약 80개 팀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가 KDRT에 구조 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던데요?

류선길 미국과 네덜란드 등 몇몇 나라의 구조대가 협업을 요청해서 같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조대 간에 묘한 경쟁의식이 있어 다른 나라 구조대에 협업을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KDRT가 'Heavy' 등급을 받은 몇 개의 구조대 중 하나인 데다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이 현장에 퍼지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 구조 작업을 펼쳤어요.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안타깝게도 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튀르키예 소방 구조대가 우리 구조대에 내린 평가가 기억납니다. 구조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슬쩍 이동하려는 구조대도 있는데, 한국 구조대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KDRT가 받은 'Heavy' 등급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찬휘 유엔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나라 국제구조대를 역량에 따라 Heavy, Medium, Light 3등급으로 나눠 5년마다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이 중 최상급인 Heavy 등급을 받은 구조대는 해외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최우선 지역의 우선 접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유엔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 속한 91개 회원국이 구조 인증을 받았는데, KDRT가 세계에서 Heavy 등급을 19번째로 받았어요. 구조 역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거죠. 지금은 33개 나라가 이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RT 대원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강해리 저희는 자다가도 구조 요청이 오면 무조건 장비를 챙겨 나갔어요. 제보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았지만, 실낱 같은 희망도 정말 소중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현지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셨고, 그게 저희에게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또 72시간의 골든타임을 넘기고도 생존한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저분들도 저렇게 힘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도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KDRT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김민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KDRT의 구조 작업은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현지 주민들의 환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숙영지에 과자, 물, 생수 등을 놓고 가는 현지 주민들이 많았고, 비 올 때 사용하라며 우의를 한 박스 놓고 간 주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지나갈 때면 연신 '감사합니다. 코레'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거리에서 구호복에 적힌 'KDRT'를 알아보고는 "brother"라고 포옹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감사를 표하기도 하셨고요. 한번은 자동차 연료가 떨어졌는데 주변 주유 시설들이 파괴돼 주유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만난 현지 소방차가 우리 구호복을 알아보고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또 언제든 필요하면 무료로 연료를 가져가라고 말해줘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튀르키예 도착 5일 차인 2월 12일 KDRT 본대 1진의 임무 종료 및 복귀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강해리 튀르키예 지진 현장 도착 후 사흘까지는 정신없이 구조 작업에 매달렸어요.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긴박감 넘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나흘째부터 구조 현장 분위기가 전과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장이 너무 고요했다고 할까요. 생존 추정자 제보나 구조 활동도 눈에 띄게 뜸해졌고요. 그때 '생존자 구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 66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연속성 있는 피해 복구에 주력

튀르키예 구조 현장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대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 있나요?

김민종 물론입니다. 출국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PTSD 사전 스크리닝을 마쳤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에 연락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에도 군의관 2명, 간호사 4명과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KDRT 대원들은 응급 의료 상황 시에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SOS 인터내셔널'이라는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PTSD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구조 현장에서는 웃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길에서 보기도 하고 훼손된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대원들이 귀국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 또한 마련돼 있습니다.

코이카는 평시에 KDRT 파견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류선길 코이카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파견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7개의 유관 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KOICA-119-공군 합동 종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해 실시했으며, 당시 시행한 화물 패킹과 항공기 적재, 숙영지 설립 같은 현장 실습식 훈련이 이번 튀르키예 파견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코이카 내부적으로는 KDRT 파견이 가능한 직원 42명의 명단을 꾸려 수시로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상황 때도 이 42명 중 신속하게 KDRT에 합류가 가능한 6명을 선발해 현지에 투입했습니다.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복귀한 KDRT

코이카는 이번 튀르키예 구조 작업 때도 그렇고 주로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의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찬휘 말씀처럼 이번에 코이카는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이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구조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부분 코이카가 KDRT 사무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는 코이카가 전적으로 최전방에 나서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받쳐주는 일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 모두 공동의 목표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KDRT 파견은 우리 코이카 직원들에게 지원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KDRT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민종 지진 발생 직후에 KDRT 1진이 파견돼 8명의 생존자 구조 등의 성과를 올렸고, 뒤이어 KDRT 2진이 파견돼 10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구호 물품 전달 및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KDRT 3진이 현지 이재민에게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을 제공하고자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1,000만 달러 규모의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진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

세계가 인정한 구조 역량,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3월 5일 튀르키예 정부와 유엔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1,003명(튀르키예 4만 5,089명, 시리아 5,914명), 부상자가 12만 명 이상이다. 이재민은 200만 명 수준.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튀르키예에서만 20만 채에 가까운 건물이 무너지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직접 피해액이 4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분쟁, 만성적 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생명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구분된다. 이 중 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는 재난이 발생한 나라의 피해 감소·복구, 인명 구조, 의료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파견한다. KDRT는 2007년 설립 이래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 2013년 필리핀 하이옌 태풍 피해 현장,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현장 등에 파견돼 총 9번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KDRT는 유엔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각 나라 국제구조대의 구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등급 평가에서 2011년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Heavy'를 유지하고 있다. KDRT는 크게 사무국과 구조팀, 의료팀으로 구성돼 있다. 코이카는 해외긴급구호대장 업무 보좌, 물류 및 예산 총괄, OSOCC 및 클러스터 미팅 참석, KDRT 현장 활동 조정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구조팀은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가 맡고, 의료팀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담당한다.

한눈에 보는

세계 주요 재해·재난·전쟁 지도 (2001~2023)

세계 곳곳에서 재해와 재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식량 위기, 의료 서비스 부재, 약화된 거버넌스 등의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반응하면서 커다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새로운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코이카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축적된 개발협력 경험과 관련 기술들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 참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행한 'The Human Cost of Disasters (2000-2019)'

캐나다 산불 2023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았다. 이 산불로 2023년 6월 27일 기준 820만 헥타르의 국토가 소실된 상태이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
미국 뉴올리언스에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직경 700km의 대형 허리케인이다. 2,5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2022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양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 폭염 2003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8월에 2주 동안 35°C 이상이 9일이나 지속됐다. 유럽에서 7만여 명이 사망했고, 프랑스에서만 1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아이티 대지진 2010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으로 22만 여 명이 사망했다.

소말리아 가뭄 2010~2012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2010년 가을부터 2012년 봄까지 기근이 이어져 26만여 명의 소말리아인이 굶주림 끝에 사망했다.

모잠비크 사이클론 이다이 2019
모잠비크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열대성 사이클론이다.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1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물 관련 극단적 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2023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으로 두 지역을 합쳐 5만 8,042명이 사망하고 11만 9,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리아 내전 2011
시리아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이다. 이 내전으로 지금까지 50만여 명이 사망했고, 550만여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이란 밤 지진 2003
리히터 규모 6.6의 지진으로, 2만 6,000여 명이 사망했다.

인도양 쓰나미 200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 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3의 강진으로 발생한 해일이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 연안 12개국을 강타해 23만 여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재해를 입었다.

러시아 폭염 2010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모스크바가 최고 38°C를 기록했다. 이 폭염으로 5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카슈미르 지진 2005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6의 지진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7만 4,500여 명의 사망자와 10만 6,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8
쓰촨성 원촨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8만 7,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237만여 명이 다쳤다.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2008
미얀마에 상륙해 초속 53m로 불어닥친 초대형 사이클론이다. 12만 8,0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인도 구자라트 지진 2001
인도 구자라트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9~7.9의 강진으로 2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호주 산불 2019
대형 산불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뛰어넘는 1,86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필리핀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 강화 사업

코이카-USAID 한·미 양국 개발협력기관 든든한 공조

한·미 양국의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와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는 2021년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태평양 지역 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를 중심으로 해양 환경 정화 및 폐기물 관리와 도시 기후회복력, 신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며 든든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몸살' 마닐라만의 연안 오염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기여

코이카와 USAID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및 양 사무소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일환으로, 필리핀 마닐라만의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 중이다.

마닐라만은 필리핀 루손섬에 있는 수도 마닐라의 서쪽에 있는데, 주변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닐라만 쓰레기의 80%는 육지에서 불법적으로 투기한 생활쓰레기이며 플라스틱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부재하다. 해양쓰레기를 처리·수거할 수 있는 선박 등 전문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국민들의 폐기물 관리 관련 인식 증진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코이카는 2021년부터 이와 같은 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필리핀 정부의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닐라만의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수거할 수 있는 청항선(항만을 청소하는 선박)의 도입과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진행 중이다. 코이카와 USAID는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의 발생과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중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폐기물의 분류 및 수거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y)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이카와 USAID는 이번 협력을 통해 마닐라만 연안 오염 관리 역량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코이카-USAID 기관 간 약정 체결식 기념 촬영

필리핀 6개 도시에 기후회복력 역량 강화 지원

코이카와 USAID는 지난 3월 기관 간 약정 체결을 통해 '필리핀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 강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필리핀 바탕가스, 레가스피, 보롱간, 일로일로, 코타바토, 잠보앙가 등 6개 도시 지자체의 기후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적용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2026년까지 필리핀 도시 기후 적응 역량 및 기후회복력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여느 섬나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관련 재해로 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2021년 글로벌 기후위험지수(2000~2019) 기준 세계 4위 국가다. 인구수 절반에 달하는 약 5,000만 명이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 및 매년 20여 회씩 발생하는 태풍 등에 따른 기후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3년 불어닥친 태풍 하이옌(Haiyan)은 사업 대상 6개 도시를 포함, 필리핀 국가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2020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발생한 태풍은 농업 및 인프라 분야에서만 약 8억 5,2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2021년 12월에 발생한 슈퍼태풍 라이로 인해 11개 지역 38개 주에서 최소 405명의 사망자, 52명의 실종자 및 1,3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약 1,0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사업 대상지인 6개 도시에서 코이카와 USAID는 기후 데이터 개발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역 차원의 기후 금융 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의 기관·환경·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후 관련 기술의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이를 각 지자체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수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6개 도시 지자체가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한국 지자체의 기후 적응 기술 및 적응 정책 우수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 다짐

코이카와 USAID가 지난 6월 12일 코이카 피지사무소에서 태평양 지역 주요 개발 현안인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피지 수도 수바에 자리한 코이카 피지사무소에서 태평양도서국 내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 시스템 향상, 자연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젠더, 인권 등에 관해서도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태평양도서국 협력 전략 프레임 워크'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미래 비전으로 채택한 '2050 푸른 태평양(Blue Pacific) 대륙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또 지난해 9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피지 정부가 발표한 '태평양도서국포럼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정부 정책(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및 자원보호, 사람 중심 개발, 디지털 연결성 및 성별 포괄성 등)'과도 결을 같이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대부분이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 자리한 만큼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 등의 기상이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한다.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이 지역 해수면이 25~28㎝, 2100년에는 1m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체결식에 참석한 박영규 주피지 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MOU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 내 한·미 협력 관계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니 그로이벨(Tony Greubel) 주피지 미국대사대리 역시 "한·미 협력은 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이카와의 성과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

라오스 여성들이 앞장서는 불발탄 제거 사업



불발탄제거팀에서 활약하는 라오스 여성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 남아 있는 나라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의 여파 때문이다. 전쟁 당시 투하된 폭발물 2억 7,000만 개 중 약 30%인 8,000만 개가 불발탄으로, 라오스 국토 전역에 퍼져있다. 지금까지 5만여 명 이상이 불발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해는 인명 손실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기에, 인명 피해는 개별 가구의 경제·사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 때문에 라오스는 불발탄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오스 여성들은 이 중요한 업무의 주축이 되고 있다. 코이카는 이들 여성을 돕고 라오스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있는 코이카의 사업을 되짚어 봤다.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 가로막는 불발탄

2021년 라오스 불발탄 분야 연간 보고서를 보면 불발탄 제거 작업과 관련한 임원 직급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2015년부터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 작업을 지원해 온 코이카는 최근 불발탄 제거 작업 분야에서의 성평등에 힘쓰고 있다.

코이카가 불발탄 제거 작업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선 라오스에서 불발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한다. 라오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약 8,000만 개의 불발탄은 베트남전 당시 투하된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라오스 전역에 투하된 폭탄은 약 2억 7,000만 개로, 1분당 평균 57개의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이 중 30%가 불발탄으로 남아 현재 라오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5만여 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거나 팔·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는 주요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유엔(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LDC)인 라오스의 빈곤을 줄이고 국가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불발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단순 지원 넘어 정부 역량 강화에 초점

이런 맥락에서 코이카는 2014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과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의 하나인 '라오스군 인도주의적 불발탄 제거팀(이하 불발탄제거팀)' 양성 및 지원에 협력해 왔다. 불발탄제거팀은 코이카가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9년 7팀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까지 총 20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코이카는 2022년부터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은 단순히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라오스가 지속 가능한 불발탄 제거 역량을 키우고 불발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라오스 국민이 불발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엔과 라오스는 기존 17개이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불발탄 제거 목표를 포함한 'SGD 18'을 2016년 발표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코이카의 지원과 다른 국제사회의 지원과의 차이는 라오스 자체의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코이카가 UNDP를 통해 지원하는 불발탄제거팀은 라오스 정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공식적인 팀이다. 코이카는 이 불발탄제거팀에 장비를 보급하고 훈련을 뒷받침하는 등 자체 역량을 기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불발탄제거팀의 불발탄 제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에는 4만 5,490개를, 2021년에는 5만 1,762개를 기록했다.

특히 코이카는 UNDP를 통해 새로 결성할 불발탄제거팀 중 1팀 이상은 여성을 리더로 하는 팀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팀으로 늘어날 불발탄제거팀에 여성 비율을 15% 이상으로 할 것도 제안했다. 이 사업은 UNDP 라오스사무소 내 불발탄사업팀(UXO Unit)의 팀장과 관련 전문 인력 및 직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UXO Unit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국인 여성이 채용되어 활약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이카는 라오스 정부의 불발탄 제거 작업에 대한 조정과 대응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경제부에는 불발탄제거청이 설치돼 불발탄 제거 작업을 전담해 대응하고 있지만, 인적 역량과 예산이 부족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수도에 있는 불발탄제거청 사무국과 13개 지역 사무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회의를 주재하고 품질 관리 임무를 수행했다. 이를테면 분기별로 기술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연 2회 불발탄 분야 워킹 그룹 회의를 지원했다. 이 덕분에 불발탄제거청의 연간 품질 관리 임무 수행 건수가 증가했다. 2018년에는 연간 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2022년에 연평균 16건에 달했다. 불발탄제거청은 불발탄



불발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코이카


라오스 전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불발탄

분야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해, 2019년부터 매년 한 번씩 작성·배포하고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코이카는 라오스 불발탄 제거에 힘을 모을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제기구나 다른 공여국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UNDP 불발탄 제거 프로그램에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른 공여국과 공동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인근 국가와 지뢰·불발탄 제거를 위해 협력하는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성과 관리'도 추진했다.

전쟁의 아픔 딛고 발전하는 미래로

코이카는 그동안 라오스 주민을 대상으로 불발탄 위험 교육을 시행하며 피해 예방에도 공헌했다. 코이카는 불발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라디오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라디오로 불발탄 위험 교육을 받은 라오스 주민은 2019년 2만 2,000여 명에서 2021년 8만 4,000여 명으로 늘어나 총 15만 명에 달한다. 그 결과 2008년 302명이었던 불발탄 피해 사상자 수는 2021년 56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이카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포괄적 지원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이 경제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돕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불발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가축이나 기자재를 지원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또 코이카의 불발탄 제거 사업으로 안전해진 볼리캄사이주, 씨앙쿠앙주 같은 지역에는 농촌 개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 불발탄 제거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불발탄 폭발로 부상한 피해자들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코이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재활 클리닉과 의수 제공 등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보건부, 불발탄 피해자 지원 경험이 풍부한 현지 민간단체 등이 의수 제작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스타트업 '공생'과 협업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모바일 재활 클리닉을 받은 피해자는 106명이었고, 심리치료와 의수를 제공받은 피해자는 각 15명씩이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라오스 정부의 불발탄 제거 작업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불발탄제거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발탄 피해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창업 상담 등과 같은 활동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한국 스타트업과의 후속 사업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코이카의 최종 목표는 라오스가 스스로 불발탄 제거 작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향후 불발탄 제거 담당 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라오스 정부가 자체의 힘만으로도 불발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이카는 이를 통해 라오스 정부가 주인 의식을 기르고 경제 성장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코이카의 지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라오스 여성들은 장차 라오스 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불발탄 제거 작업을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불발탄제거팀의 성 주류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해 양성이 평등하게 모두 발전하는 라오스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K

국제 여성의 날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취를 기념하며 성평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숨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며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서 비롯했다.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됐고, 1975년 유엔은 '국제 여성의 해'를 지정하며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3월 8일이 되면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데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업무협약(MOU) 체결

개발도상국 돕고 환경도 살리는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코이카와 국내 기업이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는 코이카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ESG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환경 보호,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떠오르는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코이카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수요를 코이카만의 국제개발협력 노하우와 접목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별 ESG 전략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와 2026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개국 지속가능한 혁신 디지털 솔루션 및 순환경제 구축사업'을 전개한다. 코이카는 중고 휴대폰을 활용해 보급형 디지털 검안기(시력을 측정하거나 눈의 상태를 검사하는 기구)를 개발한 삼성전자와 검안기 부족으로 안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 디지털 검안기를 보급한다. 또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폰 3,000대와 텔레비전 150대 등으로 혁신 업사이클링 교육 사업도 전개해 폐휴대폰 등 전자 폐기물로 인한 아프리카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SK임업과는 2027년까지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의 산림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코이카는 현재 SK임업과 베트남 정부의 산림 복원 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나무를 심어 산림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본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산림이 변함없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유한킴벌리와는 2027년까지 53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우수한 기후환경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실행력과 가능성을 갖췄지만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한 동남아시아 기반의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해 동남아 지역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 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 견인하는 지뢰 제거 사업


베트남 빈딘성에서 지뢰 위험 인식제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전쟁 당시 매설돼 오늘날까지 제거되지 못한 지뢰·불발탄이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지뢰·불발탄 등 폭발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폭발물 제거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지역사회 번영을 저해하는 폭발물

지뢰·불발탄 등으로 인한 폭발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개발도상국의 남성들이다. 주로 이들은 농사와 목축 등 야외활동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지뢰와 불발탄 등이 제거되지 않은 지역에 접근했다가 사고를 당한다. 폭발물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사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

개발도상국의 여성도 또 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이 사고를 당하면 집안일을 하던 여성이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가족은 정서적 상실 및 경제적 빈곤에 직면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폭발물 사고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높은 장벽이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없는 땅에서는 농지 개발이나 식수 시설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설 개발이 제한된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지역 빈곤 문제로 확산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오랜 기간 폭발물 제거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기술적 한계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코이카는 오래전부터 기관의 핵심 가치인 평화, 사람, 번영 등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폭발물 제거와 사고 피해자 지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도 폭발물 제거 사업에 앞장서며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지뢰 사고 없는 안전지대 넘어 선진농업 국가로

베트남은 전 국토에 걸쳐 지뢰와 불발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치러진 베트남전쟁의 여파다. 우리나라 정부와 코이카는 베트남의 국가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불발탄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한·베 지뢰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코이카는 한·베 지뢰행동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한층 확장된 2차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 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뢰·불발탄 오염이 가장 심각한 중부 지역 내 빈딘성, 꽝응아이성, 후에성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사업지역 내 지뢰·불발탄 제거 역량 강화, 지뢰·불발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지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지원 ▶▶

▶ 이 그것이다. 지뢰·불발탄 제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이카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베트남지뢰행동센터(VNMAC)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뢰·불발탄 정책 자문·제언, 오염 탐지·제거 수행, 오염 데이터 관리, 위험인식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뢰·불발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과 농업개발 활동 참여, 의수·의족 지원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뢰·불발탄 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빈곤층의 비율도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뢰·불발탄이 제거돼 안전이 확보된 농경지부터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기상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 증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기상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과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 등도 지원해 베트남이 선진농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펼쳐지며 총 2,500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다.

캄보디아: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서북부 지역의 안전 보장과 번영

캄보디아 서북부 지역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지뢰·불발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미국이 1969~1970년에 호찌민 루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500톤의 폭탄을 이 지역에 무차별 투하했으며, 이후 크메르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뢰가 다량 매설됐다. 그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지뢰·불발탄의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가 6만 4,77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이카는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뢰·불발탄 제거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는 생명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 사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6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크게 농촌 주민 역량 강화 및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소득 증대, 농촌 개발 거버넌스 강화 등 세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농촌 주민의 역량 강화와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코이카는 마을개발위원회 조직 및 자치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식수 공급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 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위생 접근성 향상과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해 농업기술 지도, 판로 확보,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지원 중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코이카는 지방국립대 농과대학 연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농촌 개발 전략 및 정책 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서북부 지역의 안전 보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기간에 1,0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66
> 전쟁이 끝난 뒤 남겨진 지뢰·불발탄은 더 이상 적군을 겨냥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 미래를 파괴한다.
> 99

DR콩고: 내전·반군 활동으로 떠난 실향민을 위한 귀향 프로젝트

지뢰·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 사업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해부터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북키부, 남키부, 이투리 지역에서 '분쟁 피해 난민, 국내 피난민 및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뢰 제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DR콩고는 오랜 내전과 반군 활동으로 나라 곳곳에 지뢰 등의 폭발물이 매설돼 있지만 위험 지역이 대부분 숲으로 우거져 있어 제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이카는 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민의 귀향과 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지뢰·불발탄 등 폭발물의 탐지 및 제거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크게 정부 및 현지 NGO의 폭발물 처리 역량 강화 교육, 폭발물 제거 활동 실시, 주민 대상 폭발물 위험 교육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코이카는 이 사업으로 16만 8,000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간접 수혜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이카가 DR콩고에서 폭발물 제거 사업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2년간 'DR콩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으로 DR콩고 정부의 폭발물 처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남겨진 지뢰·불발탄은 더 이상 적군을 겨냥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 미래를 파괴한다. 코이카는 폭발물로 인한 인류의 피해와 슬픔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날까지 더 면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폭발물 제거 관련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K


DR콩고에서 실시한 폭발물 제거 역량 교육 현장



페피 키비니에미 시딕·크리스티나 몰리(IOM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보호국)

위기가 초래한 이동성 및 취약성

"아스마의 남편 칼레드는 곡물 수확에 세 차례나 잇달아 실패한 후 이웃나라로 일용직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했다. 씨앗과 비료를 구입하느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 여정은 험난했다. 게다가 국경 넘는 데 도움을 준 밀수업자들에게 수고비를 갚느라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먹고살기 힘든 시골에 두 아이와 함께 남겨진 아스마는 14살밖에 안 된 딸을 결혼시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수 년 전 외국으로 나간 한 남자의 제안으로 딸이 국경을 넘었으나 이후 딸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 아스마의 16살 된 아들 역시 일거리를 찾아 집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아스마는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으면 경작하던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거나 이용을 당할 것이 두렵고 불안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후 문제와 인위적 위기로 난민이 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재해가 분쟁보다 더 많은 난민을 양산하고(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합산 국내실향민 총 숫자의 약 95%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 있는 데다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이동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가장 빈곤한 지역과 취약한 계층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증폭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위기 대처 방식마저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이주를 유발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의 빈도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응 메커니즘이 위기 영향을 받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와 개인들을 돌보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어떤 지원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난민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분쟁 같은 위기 상황은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의 기존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종교적 소수자나 다양한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소외된 집단들은 정부 당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공식적인 인도주의 지원 체계를 거부하고 비공식 커뮤니티 네트워크나 친구들에게 의존하기도 한다.[1] 장애인은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서도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돼 재해 발생 때 사망률이 훨씬 높다.[2]
이주 사태는 또한 전통적 대응 방식들을 무력화해 인신매매,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아동과 장애인 폭행 등 위험 요소들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전통적인 지역사회와 국가 체계가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취약 계층을 상대로 조직범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범죄 활동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인도주의적 보호 메커니즘은 대개 복잡할뿐더러 활동 시작도 느리다. 그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서비스 관련 경로가 차단되거나 교란에 직면해 미확인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 사태를 통해서는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의 보호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노출됐다. 채무 상환을 위한 강제적 담보 노동이 만연한 가운데, 홍수로 경작

페피 키비니에미 시딕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보호국

이력사항 페피 키비니에미 시딕(Peppi Kiviniemi-Siddiq)은 태국 방콕 소재 IOM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의 보호담당 선임 지역전문가다. IOM 근무 이전에는 다우존스뉴스와이어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로 활동했으며, 앞서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 비교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분쟁 및 재난으로 인한 국내실향민 (Internal Displacements)

출처: 국내실향민감시센터(IDMC)의 2023년 국내실향민 세계 종합 보고서

국가명	분쟁 및 폭력으로 인한 국내실향민	재난으로 인한 국내실향민
미국		675,000
도미니카공화국		54,000
아이티	106,000	15,000
쿠바		90,000
과테말라		74,000
엘살바도르	73,000	4,600
콜롬비아	339,000	281,000
브라질	5,600	708,000
수단	314,000	105,000
아비에이 지역	56,000	29,000
차드	80,000	158,000
니제르	101,000	248,000
말리	154,000	24,000
부르키나파소	438,000	2,400
나이지리아	148,000	2,437,000
카메룬	139,000	66,00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90,000	77,000
콩고민주공화국	4,004,000	423,000
남아프리카공화국		62,000
말라위		297,000
이라크	32,000	51,000
시리아	171,000	21,000
우크라이나	16,870,000	
예멘	276,000	171,000
소말리아	621,000	1,152,000
에티오피아	2,032,000	873,000
케냐	15,000	318,000
남수단	337,000	596,000
마다가스카르		291,000
모잠비크	283,000	113,000
아프가니스탄	32,000	220,000
파키스탄	680	8,168,000
키르기스스탄	166,000	1,700
인도	1,000	2,507,000
네팔		93,000
방글라데시	560	1,524,000
미얀마	1,006,000	13,000
중국		3,632,000
일본		51,000
베트남		353,000
필리핀	123,000	5,445,000
파푸아뉴기니	64,000	9,600
인도네시아	7,100	308,000
말레이시아		156,000

(단위: 명)

총계
6,090만 명
2,830만 명(분쟁 및 폭력으로 인한 국내실향민)
3,260만 명(재난으로 인한 국내실향민)

대륙별 현황
유럽 및 중앙아시아 17,051,000 / 107,000 (세계 전체의 28.2%)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9,027,000 / 7,449,000 (27.1%)
남아시아 35,000 / 12,524,000 (20.6%)
동아시아 및 태평양 1,200,000 / 10,079,000 (18.5%)
미주 대륙 533,000 / 2,097,000 (4.3%)
중동 및 북아프리카 482,000 / 305,000 (1.3%)

*국가와 지역 이름 및 수치는 총계가 50,000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됨
*숫자는 근사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부 총계는 각각의 수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UN Women Diverse SOGIESC Rapid Assessment Tool Guidance Note
2) Katsunori Fujii,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Disabled Persons', in Disability Information Resources, Japan

지를 잃은 수백만 명의 농민들은 더 많은 빚더미에 빠지게 됐고 밀수, 인신매매, 강제노역, 아동노동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조혼, 인신매매, 여아의 교육기회 제한 등 여아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SGBV) 및 차별이 횡행했다. 아동 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실제로 파키스탄 홍수 사태 이후 아동 조혼 사례들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부모들은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자녀들을 구걸하러 내보내고 있다고 고백했다.[3]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총 14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해 그중 110만여 명이 살던 집을 등져야 했다.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사법제도의 공식적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가정폭력, 성별에 기반한 폭력, 착취와 학대, 그리고 전쟁 후 남겨진 폭발물로 인한 부상 사건 증가,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이 횡행하면서 보호 취약 위험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난민들이 불안전하고 위험성 높은 이주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인신매매, 착취와 학대 등에 더 많이 노출됐다. 이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고 경제와 안전 상황이 악화돼 이동성 증가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2년 10월 현재, 국제이주기구(IOM)는 매달 4만여 명의 미얀마 국민이 분쟁과 경제적 이유 및 기타 사정으로 다양한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얀마를 떠나고 있으며, 대다수는 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 2023년 난민 숫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분쟁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규모 7.8의 지진이 네팔을 강타했을 때 약 810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200만 명 이상은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5] 농촌 지역에 주택과 기타 시설이 크게 파손되어 주민들은 과밀 거주지나 벽이 없는 임시시설로 내몰렸다. 특히 여성과 여아들은 폭력과 착취에 취약했다. 지진으로 전통적 생계 수단이 파괴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돈을 벌기 위해 기존의 이주 경로에 따라 노동인구가 이동했다. 그러나 이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역설적으로 인신매매범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네팔보건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지진 후 3개월 동안에만 인신매매 저지 숫자가 15%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6]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IOM은 위기 상황의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 안전하게 이주 또는 체류하게 하거나, 이미 이주 중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해결책들은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지시해서는 안 되며, 위기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종 소외되는 계층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은 또한 재해 대비, 대응 및 복구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7]

IOM의 이주·환경·기후변화 정책 2021~2030

적응 및 완화

머무는 주민을 위한 해결책

- 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
- 영구 이주
- 재해 대비 및 비상사태 계획
- 전환 이행 계획 수립(환경 악화, 재원 관리, 분쟁 예방 및 생계 수단 다변화)

인도주의적 대응

이주 중인 주민을 위한 해결책

- CCCM 국제적·국가적 협의 조율
- CCCM 정부의 활동 및 역량 강화
- 국내 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 조율과 시행
- IOM 활동의 환경 성과
- 성별, 노인, 청소년 및 어린이에 중점을 둔 국내 난민 보호 조치 실행

이주 관리

이주하려는 주민을 위한 해결책

- 이주 경로
- 인도주의적 비자
- 법적 신분
- 국경 관리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부족 지원 및 분석

3) Source: Pakistan Floods 2022 Multi-Sectoral Needs Assessment
4) IOM Myanmar Crisis Response Plan 2023
5) IOM Appeal Nepal Earthquake, 2015
6) Ligia Kiss, Anthony Davis, David Fotheringhame, Alys McAlpine, Nambusi Kyegombe, Ludmila Abilio, Joelle Mak. The trafficking of girls and young women: evidence for prevention and assistance. Plan International, 2019
7) ASEAN REGIONAL FRAMEWORK ON PROTECTION, GENDER, AND INCLUSION IN DISASTER MANAGEMENT
8) IPCC, 2022a


네팔 신두팔촉 지역 일대가 지진으로 붕괴된 모습


홍수로 완전히 물에 잠긴 미얀마 북서부 사가잉 지역의 시덕타야 마을 주변 모습

이주하려는 주민을 위한 해결책 제공: 안전하고 규칙적인 이주 지원

원래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발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구적인 난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8] 따라서 강제송환 금지 같은 국제적인 인권 의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이주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TiP(Trafficking in Persons·인신매매)와 같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정규 신분과 지속적인 체류를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수립돼야 한다.

이주 중인 주민을 위한 해결책 제공: 인도주의 조치 보호의 구심점

인도주의적 대응에 보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은 늘 이행되지는 못하더라도 비교적 잘 확립돼 있는 편이다. 보호 활동을 병행하는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해서는 분쟁이나 재난 발생 시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법 위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보호 의무 이행자의 헌신과 능력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개인의 위험, 위협, 취약성 및 역량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험과 악화 가능성을 피하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연령, 성별, 다양성에 따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세분화돼야 한다. 그런 관계가 돼야 성폭력, 인신매매 같은 특정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험에 대응하며 범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머무는 주민을 위한 해결책 제공: 보호 강화, 추가 이주 예방 및 최소화 위해 재난 위험 줄이고 현장 적응력 높여야

재난 위험 줄이기와 현장 적응은 강제이주 유발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 사항들을 반영하고 통합해야 한다. :

- 공평한 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 위기 상황 주민들의 안전, 복지, 권리를 우선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재해 위험 감소.

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는 취약한 그룹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위기 상황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생계 수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보호 문제와 성별에 따른 문제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은 지역사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가능한 양성 평등의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취약한 집단의 권리·복지·존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

아시아 난민들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보호하려면 안전한 이주 경로, 예상 조치, 재해 위험 감소, 현지 적응 및 위기 상황 인구와의 의미 있는 유대 관계가 포함된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민 개인의 권리, 복지 및 최선의 이해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

데이터 개선에 집중해야

기후 문제로 인한 난민 이주, 인신매매 등 난민 발생과 관련한 위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평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위험 등과 함께 고려해야 무엇이 가장 절박한 부분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IOM은 인신매매 방지, 장애인 포용, 아동 보호, 젠더 기반 폭력 및 기타 긴급 상황 시 보호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연구 및 데이터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IOM의 난민상황추적망(DTM)은 잠재적 피해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표적 지원을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강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주는 정수기가 수미, 체르니히브,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도네츠크 지역의 13개 자치단체에 전달됐다.

대니얼 부쉬·에바 마리아 가이거(GIZ 우크라이나 사무소)

직접적 지원, 지속적 회복, 장기적 재편: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부터 시작!

이호르*는 조용한 성품이다. 하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그가 지역을 이끄는 리더로서 타고난 지도력을 갖췄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다. 이호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동쪽,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르니히브주(州)의 소도시 시장이다. 인구 6,000명 가량인 이 소도시는 2022년 봄, 약 한 달간 러시아 점령하에 있으면서 19명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주거 건물과 공동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는 전쟁 피해를 겪었다. 이호르 본인도 러시아군에 붙잡혀 3주 넘게 감금돼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를 만나면 지역사회 재건 노력과 변화를 일궈내려는 모든 주민의 각오에 대한 얘기부터 꺼낸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재건을 이루겠다는 주민들의 에너지와 시장인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알아주기 바랄 뿐이다.

* 이름은 신원 보호를 위한 가명

다단계 복구 및 재건 과정에 대한 기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 ▶▶

▶ 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떠나거나 국내에서 난민 신세가 돼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러시아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두려움과 끊임없는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 에너지와 상수원 시스템이 파괴돼 전기·난방·급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완전히 끊겼다. 국민들은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졌지만 의료기관과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괴돼 적절한 의료 및 심리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예년의 3분의 1로 위축되면서 재정적으로 급격한 영향을 미쳐 많은 중소기업이 절체절명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국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노력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주권을 지키고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는 길을 계속 가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의는 전례 없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다.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우크라이나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현지 파트너들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이호르 시장과 같은 의사결정자들이 변화를 만들고, 국가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유럽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대니얼 부쉬
GIZ 우크라이나 사무소장

이력사항 대니얼 부쉬(Daniel Busche)는 GIZ에서 15년 넘게 에너지와 물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근무해 왔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무소장이다. 장기적 구조 전환, 무력 충돌에 대한 대응, 강제 이주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에바 마리아 가이거
GIZ 우크라이나 연락담당관

이력사항 에바 마리아 가이거(Eva-Maria Geiger)는 GIZ 우크라이나의 연락담당관이다. 전략 포트폴리오 개발, 이해당사자 협력 관계를 맡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및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리비우 지역에 있는 '인민의 집'을 개조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온 이주 난민들의 집이자 가족들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 협력과 강력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 더해가다

독일은 30년 이상 우크라이나의 충실한 지원국이었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공여국이다. GIZ는 독일 정부를 대표해 지난 30여 년간 우크라이나 파트너들과 협력해왔으며, 2013~2014년 벌어진 '존엄의 혁명(우크라이나 반독재 혁명)' 이후 지원을 대폭 확대해왔다. 그때부터 GIZ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자치 등 바람직한 거버넌스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분야들은 전쟁 이전에도 유의미했을 뿐 아니라 전쟁 기간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남아있다. GIZ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해 놓은 22곳의 사무소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활발한 네트워크 덕분에 전쟁 발발 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신속한 지원은 전쟁 시작 후 처음 몇 달 동안 특히 중요했다. GIZ는 독일 정부와 다른 공여국과 기관들(유럽연합 및 스위스개발협력청 등)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전기·난방 공급 복구를 위한 주요 기반 시설용 발전기와 예비 부품들을 공급했다. 응급 장비와 의약품도 병원에 전달했다. 현지 기업들 상당수가 적대행위 피해를 입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황에서도, 복원력 강화로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중앙 정부의 조율과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의 균형 잡기

그런 즉각적인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파트너들도 이제는 세계의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복구 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선 1,350억 달러(미화) 상당의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손실됐다. 이는 최근 카호프카댐(우크라이나 지역의 댐) 파괴에 따른 피해 규모는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다. 그중에서도 학교와 유치원, 의료 기관 및 병원, 상수도·난방·전력 공급, 통신, 행정·문화 건물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설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도시 기반 시설 붕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반 시설 붕괴는 경제 침체와 주민들의 대규 ▶▶



국내 난민들을 위한 임시 주택에는 청정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태양 전지판이 설치됐다.



변압기와 개폐기 장치가 전기 공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모 이탈로 이어진다. 주민들에게 적절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둘러 공공서비스를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회의 중추로서 재건 의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재건 과정의 기반과 통치를 확립해 가고 있다.

참여·포괄성·투명성과 같은 원칙들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는 데 핵심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 복구 및 재건 과정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앙 조율과 조정이 지방자치단체들과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해야만 포괄적 복구와 재건이라는 엄청난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GIZ는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효율적 재건과 복구 체계를 수립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재건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재건기관(State Agency for Restoration)에 조언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원을 받는 'DREAM 시스템'은 재건 프로젝트들을 착수-관리-감독(monitoring)-관찰하기 위한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본다'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어 확실한 투명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과 지원이다. GIZ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면서 피해 분석을 돕고, 재건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들에 소요될 자금을 동원해 주고 있다.

체르니히브주의 경우,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전쟁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드러내는 훌륭한 본보기이기도 하다. 대단히 인상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신감, 의지, 용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GIZ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의 광범위한 활동과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쟁 참화를 입은 수백 개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돕고 있다. GIZ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재건·재편 의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핵심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K

GIZ 소개

GIZ는 독일 정부, 유럽연합 및 다른 공여자들을 대표해 우수한 거버넌스와 분권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조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GIZ는 30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왔다.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GIZ는 취약한 상황의 상당수 국가들을 포함해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7억 유로에 달했다.



남청수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과장

복합위기 시대 우리 개발협력의 역할은

들어가며

이제는 고인이 된 독일의 사회철학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낸 지 40년이 돼 간다.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그의 위험사회 담론을 담은 책은 1986년에 출간됐는데(한국어판은 1997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냉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던 시점이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를 거두고, 지구인들이 평화를 꿈꾸는 그런 시기에 위험이 세상을 잡아먹는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다니 저자는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가?'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근대 세계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콜라보(컬래버레이션)를 통해 경제 성장이 모든 다른 가치를 잡아먹는 시대였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위험이란 건 마땅히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다. 하지만 기술문명이 발달하며 분업화가 심화되고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벡이 이 책을 내게 된 동기인), 원전 폭발 등 그 발생과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던' 인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필자는 최근 복합위기라는 단어가 각종 미디어

와 코이카의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벡의 그 담론이 떠올랐다. 어쩌면 벡이 말하던 위험사회의 실재가 우리가 지금 듣고 말하는 복합위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말이다. 인류는 여태껏 고도성장과 부의 창출만을 바라보며 전속력으로 달려온 결과,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그것을 감내하기가 벅찬 시점에 도래했다는 의미이다.

이 시대 복합위기의 양상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발간한 〈Global Risks Report 2023〉는 전 세계 1,2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글로벌 위기 이슈를 선정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가장 큰 이슈로 환경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천연자원 위기를 꼽았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지경학적 대립, 사회적 측면에서 생계비 위기, 사회통합 붕괴와 사회 양극화,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기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불안전이 선정됐다. 그리고 이 이슈들은 그대로 10년간의 가장 큰 이슈로도 선정되었다(WEF, 2023). 복합위기의 시대는 이런 여러 위기가 전 지구에 걸쳐 서로 얽히고설키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복합위기'라는 표현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에 미친 에너지 위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는 보건 위기가 단순히 '보건상의 위기'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영미와 유럽 등 보건 및 의학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었다.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이 전염병이 낳은 불안은 막대해, 전염병의 확산 경로와 일치하는 인구의 이동은 모두 통제됐다. 그에 따라 공장도 멈추고 거래도 멈추고 소비도 멈췄다. 2020년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6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인 -3.3%로 감소하였다(The Fund for Peace, 2022). 미국의 GDP는 2022년 1.8% 성장에서 2023년 0.4%로 감소가 예상되며, 유럽연합은 3.3%에서 0.2%, 일본은 그나마 나은 1.6%에서 1.5%로 각각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전 세계 GDP는 4.8%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나, 이는 팬데믹 이전인 6~6.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더욱 문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각국이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된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주요 경제대국의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을 통한 돈 묶기로 나타났다. 2022년 미국 연준은 3월 0%에서 0.25% 수준에서 12월에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상이다(UN, 2023).

주요 경제대국의 이러한 금리인상은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두 가지 영향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그 대국들에 물건을 파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던 국가들에 생산비용, 거래비용 증가를 일으킨다.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생산능력의 감소는 이들의 부 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공공재정 지출, 특히 사회안전망 부분에 대한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이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곡물 및 경작 물품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개도국·빈곤국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실제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의 수는 2배가 증가했다(UN, 2023).

둘째, 개도국의 부채 문제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기축통화 환율의 증가, 반면에 개도국들의 생산 역량 감소, 사회안전망 붕괴로 인한 노동력 확보 약화 등은 함께 연결돼 개도국의 부채 상환능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2022년에서 2008년 사이 최약국 20개국(V20)의 채무는 4,358억 달러로 파악되며, 2024년에만 689억 달러의 채무 상황이 걸려 있다. 그레나다,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아이티, 말라위, 파푸아뉴기니 등은 고위험군에 이미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GDPC, 2022). 현 상태에서는 2024년 전후로 이들 국가의 디폴트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도국들의 디폴트는 그들에 대한 채권자·채권국들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이게 끝일까. 복합위기 시대에 한 국가의 재앙은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개도국의 사회안전망 붕괴는 사회통합의 붕괴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상당수가 겪고 있는 반군, 내전 등의 무력 분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재해, 생활기반 붕괴와 함께 이러한 분쟁 상황의 증가가 주민들의 대량이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10여 년간 목격하고 있다. 더불어 대량이주 피난민의 유입이 ▶▶



남청수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과장

이력사항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전쟁)과 정책학(정책평가), 스웨덴에서 평화분쟁학을 공부했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업팀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전략기획팀 차장 등으로 재직했다. 2016년 3월부터 코이카에서 젠더 분야 개발협력사업 기획 및 평가 외에 분쟁취약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화할 경우, 수용국의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에 따라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유입된 레바논은 현재 준 국가 실패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초기 개전 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폴란드의 경우, 점차 난민과의 공생에 대한 사회적 피로가 증가하고 있다. 난민 이주 통제가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브렉시트(Brexit)를 택했던 영국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불황에 진입했다(UN, 2023). 복합적 상호의존 같은 국제정치학의 고전 개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글로벌 사회는 위기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 남의 불행은 나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역할

이런 복합위기의 메가트렌드가 휘몰아치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이번 MAGAZINE KOICA의 기획을 위한 회의에서 담당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해일 같은 복합위기의 바닷속에서 코이카의 ODA(공적개발원조)라는 건 우주의 먼지 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해일을 막을 수도 없고, 흐름을 바꾸거나, 어떤 결정적 영향을 끼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처리해야 할 이슈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할 일'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글로벌 복합위기의 얽힌 실타래를 모두 풀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듭 정도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이 위기들은 하나의 행위자, 하나의 국가, 하나의 기관이 해결할 수는 없다.

코이카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크게 두 가지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의 여러 단계가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H)-개발(D)-평화(P) 연계 접근에 기반한 분쟁 및 취약국 지원과 관련돼 있다. 단순히,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 자원, 인적역량 등이 지속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재난 재해로 인한 취약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경제불황, 사회적 자본 붕괴, 무력 분쟁, 그리고 대규모 피난민 이주 등 다수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시 그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복합위기의 양상을 볼 때, 우리의 이러한 대응 노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복합위기는 일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경제 성장, 산업화 등이 부의 분배나 다양성 인정, 환경보전과의 균형, 안전·안보가 뒷받침된 산업 등의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채 오랜 기간 쌓여온 결과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온 데 따른 근본적 원인들을 간과한 채 눈앞의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에만 치중한다면, ODA나 복합위기 대응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왜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왜 이러한 변화를 택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이제는 정말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K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산소발생기를 지원한 코이카

ABC 프로그램(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의 일상화 속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개발도상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갖추지 못한 탓에 백신 수급 단계부터 난관에 직면했고 이는 곧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이어졌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으나 ‘위기의 일상화 속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코이카, ABC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다

2020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으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이하 Building TRUST)’ 추진을 밝혔다. TRUST는 ‘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의 약자다. 해당 구상의 일환으로 코이카는 2020년 ABC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ABC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 방향은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이다. 코이카는 3대 지원 분야를 바탕으로, 지원 과정을 ‘긴급대응(Response·2020~2021)’과 ‘회복(Resilience·2022~2024)’의 2단계로 구분했다.

2020~2021년, 긴급대응에 주력하다

2020~2021년에는 긴급대응(Response) 방향에 맞춰 사업별로 코로나19 대응을 추진했다. 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되, 개도국 수요에 맞춰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및 피해 지원 사업을 일부 추진했다. 특히 ▶▶

ABC 프로그램 3대 추진 방향

지원 분야	긴급대응(2020~2021)	회복(2022~2024)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Action on Fragility)	- 진단키트 지원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취약계층 인도적 수요 긴급지원	- 진단기술 자체 역량 확보 지원 - 치료제·백신 공급 지원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Building Capacity)	- 감염병 예방 교육 - 감염병 조기탐지 역량 강화 - 감염병 신속대응 기반 조성	- 감염병 예방사업 형성·기획·추진 - 감염병 탐지사업 형성·기획·추진 - 감염병 대응사업 형성·기획·추진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Comprehensive Cooperation)	- 국내 감염병 대응 경험 연구 - 코로나 극복 위한 세계시민연대 강화 - 국내 혁신 기술 발굴 및 확산	- R&D 융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 국내 혁신 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 협력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고자 COVAX AMC(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약 2억 달러를 공여했으며, 국내에서 소진하기 어려운 백신을 협력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게 지원했다.

취약계층 주민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건방역 물품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진단키트 462만 회 분량을 신속 지원해 코로나19 진단율을 높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했다. 콜드체인, 주사기, 접종센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접종 인력 교육, 주민 인식 개선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개도국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코이카가 기존에 지원한 보건의료 시설은 협력국의 의료 인프라와 환경 개선 강화의 거점 역할을 했다. 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정책결정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내재화에도 주력했다. 한국의 성공적인 감염병 대응 사례도 해외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질병관리청과 의과대학 등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도국 인력을 교육하는 한편, 방역 모델을 확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신설과 키르기스스탄 선거 방역 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워크스루 진단부스, 음압캐리어, 진단키트 등 한국 기업의 우수 물품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PCR 장비,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 물품과 의료기기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 및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2~2024년, 회복을 이뤄가다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은 2022년을 기점으로 회복(Resilience) 단계에 진입했다. 기존의 긴급 대응 중심 지원에서 중장기적 복원력 강화로 지원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회복 단계의 핵심 지원 방향은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의 질적 향상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 위기에 대한 회복 탄성력 확보다. 특히 2021~2025년 진행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이행에 기여하고자, 감염병 예방·탐지·대응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초 위생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등 포괄적 감염병 대응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도국의 아동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 교육 및 농업활동 지원을 통해 감염 피해국 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일상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집트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관련 장비 지원, 네팔의 청년 및 여성 고용 증진을 통한 상업적 영농 지원, 파라과이의 취약계층 대상 심리상담 지원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감염병 예방-조기탐지-신속대응’에 이르는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지원도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국내 혁신 기술을 발굴해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이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연간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ABC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이카의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이 다시 닥치더라도,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

ABC 프로그램 회복단계(2022~2024) 추진 계획

2021~2025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이행 및 개도국의 포괄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사업 유형
A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	- 국제질병퇴치기금 - 인도적 지원 보조금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 나라별 협력 - 글로벌 연수 - 시민사회 협력 - 글로벌 인재
B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	- 나라별 협력 - 글로벌 연수 - 시민사회 협력 - 국제질병퇴치기금 -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 감염병 조기탐지	
	- 감염병 신속 대응	
C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 R&D 융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제질병퇴치기금
	-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 시민사회 협력 -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 ODA 교육
	- 국내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발굴·확산	- 혁신적 개발협력 -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 감염병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14년 미국 주도로 발족, 한국은 2016~ 2020년 1억 달러 지원 공약 달성 완료 및 2021~2025년 2억 달러 기여 공약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글로벌 중추 ODA 공여기관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가?

정부는 6월 30일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6조 8,000억 원 규모의 '2024년 ODA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공헌에 부합하는 경제적 위상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ODA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ODA 규모를 2023년 4조 7,771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을 증액해 사상 최대인 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 6조 4,000억 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즉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 재정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ODA 중요성과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시사하는 바 ▶▶

▶ 가 크다. ODA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하다. 한편 한·중·러 국제 갈등 지속, 포스트 팬데믹, 세계 경제 위기, 기후변화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정치·경제 환경은 1992년 소련연방 해체 이후 가장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ODA를 통해 세계의 안정, 지속 가능성, 자유와 평화 및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 국제 정치·사회 역학 관계를 고려해 새로운 외교 안보 및 ODA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ODA 사업의 기획과 실행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제약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성과 경험이 취약했다. 또한 과거 정부는 남북 문제를 통해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실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나 과거 한·중·일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ODA 중추 공여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ODA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 우리나라 ODA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

첫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전략의 계속성을 확실히 하면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B3W(Build Back Better World), 유럽연합(EU)의 인도태평양전략 내 개발 구상 등과 우리의 자유·평화·번영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연계, 그리고 부산 이니셔티브를 고려하는 통합적인 국가 ODA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이는 한·중·일 지역을 넘어 전반적인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중추 ODA 공여국으로서 ODA 공여기관 역량 강화와 쇄신: ODA 공여기관, 사업 실행 기관, 관련 학계 전문가 등 ODA 전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의 전환, 그리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사업용이나 당면한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해온 ODA 사업의 관성과 타성을 지양해야 한다. 다자간 협력을 통해 주요 우방국가와 ODA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여기관과 민간조직들이 내부 역량 강화와 쇄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 ODA 사회에서 수동적이고 사후 대응적인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ODA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 우리는 ODA 사업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태평양전략,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ODA 정책과 대외정책의 통합은 시너지 창출과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ODA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전략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부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ODA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 대외적으로 양자 간, 그리고 다자간 사업 형성, 기획 및 수요 기반 맞춤형 협력 사업의 추진을 강화해 글로벌 ODA 사업의 기획 및 개발의 경험을 축적해야만 글로벌 ODA 중추 공여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급변하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시 남북관계와 한·중·일 중심으로 ODA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ODA 공여기관과 민간기관, 전문가들 역시 국내 현안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관성과 타성을 극복하고, 정책 수립, 조정, 기획, 사업 수행과 R&D 전반에 걸쳐 글로벌 ODA 중추 국가에 부합하는 어젠다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년 한국의 ODA 정책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유, 평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ODA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ODA 공여기관, 조직 그리고 개인의 변화와 쇄신은 언제나 저항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야만 한다.

'글로벌 중추 ODA 공여기관으로서 준비는 돼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국내 ODA 관련 민과 관의 협력 강화,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들의 세심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연유이다. K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력사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 및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및 국제보건전략센터 소장 등의 임명을 받아서 다수의 국제보건사업 및 국제사회와 연구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ODA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불러온 식량 위기

먼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돌아보자. 우리나라는 올 4월 초에 이미 30℃를 돌파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 우리만 화들짝 놀란 건 아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에 이미 44℃를 돌파했고, 체감온도는 54℃에 이르렀다. 태국과 인도에서는 갑자기 닥친 무더위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부족 사태까지 덮쳤다. 지난 3년간 이어진 라니냐가 물러가고 엘니뇨의 해가 막 시작된 연초에 벌어진 일이다.

2019년 엘니뇨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열대 태평양의 수온은 평년보다 1.2℃가 높았다. 그때 호주에서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한반도 면적의 85%에 상당하는 숲이 잿더미가 됐다. 캥거루와 코알라 등 수많은 야생동물이 산불에 희생됐다. 식량 생산 역시 타격을 입었다. 2020년 호주의 밀 생산량은 엘니뇨가 끝난 2021년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올해는 열대 태평양의 수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슈퍼엘니뇨의 해가 될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측한다. 올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많은 농학자가 우려하고 있다.

세계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국가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중고위도에 위치한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국가는 식량을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 대부분을 미국, 호주, 브라질 등 3~4개국에서 수입한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상상과 달리 식량은 석유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편중된 자원이다. ▶▶

최근 발간된 〈2023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58개국 2억 5,800만 명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6억 명 이하로 떨어졌던 영양부족 인구수가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는 8억 명을 크게 넘어섰다고 우려한다.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가 가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후 위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생산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크게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뉴스를 장식하겠지만, 국지적으로는 영양과 식품의 질, 그리고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소와 과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국가 간 물 전쟁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헬만드강의 물 사용권을 두고 다투고 있고,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와 나일강의 댐을 두고 다투면서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중동부터 인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까지 물을 둘러싼 분쟁은 기후 위기와 결합하면서 더 큰 위협으로 현실화한다. 물 분쟁이 발생한 대부분 국가는 이미 식량 위기를 겪고 있거나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들이다.

지난해 발표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2030년대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는 1.15℃가 상승했다. 인류가 기후 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함께 기후 위기로 초래될 식량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발도상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개도국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기후변화 적응 등 농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0% 이하로 감소했다.

농업 ODA, 달라져야 한다

코이카에서 농업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업계에서도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국가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3개국에 KOPIA(한국플랜트산업협회) 센터를 설립해 종자 개량부터 정밀농업까지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개도국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거나 개도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초래될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ODA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후스마트 농업 기술을 중심에 두고 지원을 늘려가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개도국이 가장 취약한 건 자국의 농업기후 적응 역량 평가와 식량 공급망 다변화 등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이다. 안타깝게도 ODA 사업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 농업만 보고 식량 산업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 ODA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농업기술을 활용해서 개도국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술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수원국은 이 과정에서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을 확립할 수 있다. 국내에서 농업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늘어날수록 두 나라의 농업 협력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대국의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농업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결국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업 ODA는 개도국의 농가를 지원하는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 ODA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상대국의 농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ODA는 해외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대국의 농업과 식량 산업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수준 높은 농업 ODA가 가능하고,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아질 수 있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 곳간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곳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도 다가올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K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이력사항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환경과 기후변화를 연구했고, 현재는 한국정밀농업연구소에서 식량과 미래 농업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량위기 대한민국〉, 〈기후대란〉 등이 있다.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인터뷰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글로벌 복합위기 “재난, 대응하지 말고 대비하라”

오늘날 세계는 분쟁, 경제 쇼크, 기후 위기로 전례 없는 규모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WFP는 잇따르는 재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대응 시스템을 기존의 위기 ‘대응’에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수급 불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MAGAZINE KOICA는 WFP 한국사무소의 마리안 윤(한국 이름 윤선희) 소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식량 불안과, 변화하는 기아 문제의 양상,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소장은 WFP의 광범위한 대응, 특히 기상 이변이 재난으로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대응 활동(Anticipatory Action, AA)’[1]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

WFP에 의하면 선제대응 활동(AA)은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윤 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KOICA-WFP의 WFP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복원력 구축 및 지속가능 식량 시스템 강화 사업을 선제대응 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1) ‘예측적 조치’, ‘사전 조치’로도 불린다.

Q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기후 관련 위험 등이 뒤섞인, 흔히 ‘복합위기’라고 불리는 서로 연계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관련한 WFP 한국사무소의 긴급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윤선희 소장(이하 윤 소장) 세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위기는 식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 몇 년 동안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을 겪은 인구가 2~3배 증가했습니다.

WFP는 전 세계 기부자들로부터 140억 달러를 받아 지난해 약 1억 6,000만 명을 도왔습니다. 기부 금액과 수혜자 규모 모두 전례가 없던 기록이지만, 결코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 규모가 전보다 확대됐고, 위기 상황의 심각성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도 올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식량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요청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된 만큼 우리는 인도적 지원 기관의 위기 대응 지침인 ‘비상 활성화 프로토콜’을 개정했습니다. 배고픔이 발생하는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과거엔 기아 문제가 주로 시골, 외딴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중심지와 대규모 대륙 간 불법이주 과정에서도 배고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배고픔을 겪는 젊은 도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기아 문제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Q WFP는 사후 대응보다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소장 조기대응 또는 선제대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호 활동을 회복과 복구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과거의 발상이, 위기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제대응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다가올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행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닥치기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란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허리케인이든, 가뭄이든, 메뚜기 떼든, 어떤 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난은 특히 날씨와 관련이 있는 만큼, WFP는 관련 기관들과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 닥쳐올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비와 선제대응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선제대응 활 ▶▶





동 프로그램은 대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선제대응 활동은 재난 피해를 예측하고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실제 대응 조치로, 위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많은 재원과 인적 자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시작한 선제대응 활동은 이제 우선순위 프로그램이자 대응 메커니즘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점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늘 해오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선제대응 활동은 기후 위기와 관련이 깊고, 시스템과 지원 장치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수혜자들은 실제 위기 상황을 준비된 상태로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존중 받는 방식,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 선제대응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 소장 전쟁 같은 것은 예측이 어렵지만, 날씨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특정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기술, 위성 이미지 및 기상 관측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폭설이 내릴 것 같으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매일 이러한 시스템의 혜택을 보고 있죠.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말리아의 한 농부에게 기상 정보는 생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선제대응 활동은 재난으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WFP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복원력 구축 및 지속가능 식량 시스템 강화 사업은 선제대응 활동과 복원력 구축을 통해 수해 피해 가정의 식량 안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혁신적인 '사전 소액 보험', '예측 기반 자금 지원' 및 '계절별 생계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소장님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윤 소장 방글라데시에서 코이카와 함께한 사업은 선제대응 활동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재난이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WFP는 연중 날씨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계절별 생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홍수가 난 후 피해자들에게 제공해 왔던 현금 지원을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비축할 음식을 미리 살 수 있었고,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집을 수리하는 등 각자에게 필요한 대비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사업 이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 보험 또한 이 사업에 포함된 조치였습니다.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것 중 하나는 재난 충격과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Q 이번 사업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윤 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수혜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발생 불과 며칠 전에 지원받은 현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충격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든 지역사회의 생산·공급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현금이 쓰이려면 시장이 필요한데,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있어도 쓸 수 없으니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미리 현금을 지급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비축하고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WFP 한국사무소는 한국 정부 및 코이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ODA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이 궁금합니다.

윤 소장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 서 성장한 사람이라 그 당시에는 코이카 활동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과 코이카가 얼마나 발전했고, 이 분야에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데도 한국과 코이카는 사업 범위와 실행 방식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WFP 한국사무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나라의 지원 요청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2] 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 개발 문제와 인도적 대응 분야에 앞장서겠다는 방향성과 포부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이자 세계 10대 선진국 중 하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도 글로벌 리더 국가의 명성에 걸맞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코이카가 현장에서 시행한 일부 프로젝트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점점 더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한국 정부의 ODA 방향성에 발맞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ODA 증액 약속 이행을 지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훌륭히 해왔지만,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 2021년 기준, 한국은 WFP의 10대 공여국이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WFP는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윤 소장 WFP는 가장 규모가 큰 인도적 지원 기구이지만, 파트너 없이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1,70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한국 NGO들과도 협력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많은 NGO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시작할 운용 기반 또는 지리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WFP는 해당 분야 파트너이자 함께 일할 잠재력과 관심을 가진 한국 NGO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WFP가 한국 NGO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





케냐 민관협력사업 팀앤팀 식수사업

물 분야 중기 전략 2021~2025

지속가능한 물 공급·관리를 위한 코이카의 노력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물 관련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했다. 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인간이 누리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물,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와 가뭄 등 물과 관련한 재해도 늘어나고 있다.

물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각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폭우와 홍수, 가뭄 등으로 희생자가 발생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물의 날 지정을 계기로 물 분야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기 전략 뛰어넘는 물 분야 2기 중기 전략

코이카는 2015년 말에 물 분야 1기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물 분야 중기 전략 2016~2020'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이라는 비전 아래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식수 공급과 위생 ▶물 관리 ▶물 재해 관리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에 집중했다. 이 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물 분야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 물 분야가 국가 소득 및 협력국의 기반시설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보니 당시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에 대한 물 분야 ODA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코이카는 현재 2기 전략인 '물 분야 중기 전략 2021~2025'를 새롭게 수립했다. 전략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 확보 ▶지속가능한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해 관리로 설정했다. 2기 전략은 전 지구적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기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관련 목표들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별 프로그램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물과 연계된 타 분야의 접근 방식과 성과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이 1기 전략과의 차이점이다. 또 1기 전략 목표 중 하나였던 물 관리가 디지털 물 정보화 및 유역 통합 물 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디지털 물 정보화와 유역 통합 물 관리는 2기 전략 전체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목표로 이를 통해 모든 프로그램에 물 정보화와 물 거버넌스 내용이 추가됐다.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개선이 우선

물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식수 공급과 위생 문제에 취약하지만 새로운 수원을 개발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개발도상국이 기존 수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소규모 식수 공급 ▶대규모 식수 공급 ▶소규모 위생시설 ▶대규모 위생시설 이렇게 네 가지 중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 사업'으로는 시설 개보수, 펌프 설치, 친환경 정수시설과 저장용 물탱크 지원, 화장실과 정화조 지원, 주거 위생시설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또 민관협력으로 현지 및 국내 NGO 단체들과 현장 밀착형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 사업'은 상수도 시설 교체와 구축 및 현대화, 하수처리시설 지원, 재이용시설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운영 중인 시설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환경보호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전력 보급 상황, 법적 문제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진행한다.

디지털 정보화와 유역 통합 관리로 물 자원 관리해

물 관리는 기후변화의 적응 및 회복력 강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환경 및 사회·경제적 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물 관리를 하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수 있다.

물 관리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물 정보화 프로그램, 둘째는 유역 통합 물 관리 프로그램이다. 먼저 디지털 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ICT 기반 수문 기상 정보 모니터링 ▶유역 단위 물 관리 기반 정보 ▶물 이용 정보 ▶물 재해 정보 ▶물 환경 정보 ▶시설물 관리 정보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6가지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협력국의 제반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국가 상황에 따라 핵심 요소부터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물 관리는 기후변화의 적응 및 회복력 강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환경 및 사회·경제적 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유역 통합 물 관리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물의 범분야적 특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협력국들의 국가·지역별 물 현안을 우선 파악한 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회·경제·환경·과학 등 각 분야의 이슈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프라 구축 등의 물적 지원보다는 사업을 발굴해 기획하고 법·제도적 분석을 하는 등의 질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역 통합 물 관리 프로그램의 중점 사업에는 통합 물 관리(IWRM)와 물 거버넌스가 있다. 통합 물 관리는 협력국가의 장기적인 물 관리 정책을 위해 물 현안 및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수립, 기관 참여, 재정 확보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물 거버넌스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유관 부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국의 국가 정책 및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물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물 재해 관리 프로그램

인적·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물 관련 재해에는 홍수, 폭풍, 쓰나미, 가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물 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화해 나타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재해 위험을 경감시키면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와 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관련된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째는 구조적인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용수 개발과 관리 ▶기후스마트농업 도입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는 비구조적인 정책적 접근으로

▶방재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예경보 체계 구축 ▶재해 위험 경감 교육 및 인식 제고 등이 있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유역 종합 홍수 관리 ▶홍수 예경보 ▶가뭄 예경보 ▶용수 개발 ▶관개 효율화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역 종합 홍수 관리 사업으로는 홍수 관리 계획 수립, 홍수 위험 정보 파악, 침수 방지 시설 지원, 재해위험기금 마련 등이 있다. 코이카는 홍수와 가뭄 예경보 시스템 확립을 위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단위 물 관리 기반 정보, 비상 대처 훈련, 기술 연수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용수 개발 사업에서 주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용 저수지와 지하수 등 유역 기반 용수 확보, 용수 공급 관리 효율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개 효율화 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도 평가, 관개수로 구축 및 개선, 농업용 관수로 관리 시스템 확보, 농업 재해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지역별 우선순위 고려해 사업 추진

물은 기후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인권보장 및 자연환경 보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물의 고유 특성을 포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사하라사막 이남은 절대적인 물 부족 지역이므로 식수와 농업 등 용수 확보를 위한 물 순환 통합 물 관리 모델 개발과 물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필요하다. 반면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물의 효율적 사용 및 물 절약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남미에서는 돌발 홍수 및 급격한 유량 변동성에 따른 종합 재해 관리 시스템 개발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농업·에너지·산업·도시 등의 물 수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는 인구 이동 및 물 분쟁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물 정보 체계 구축 및 연구 혁신 강화를 위한 통합 물 관리 체계 개발 사업이 우선순위다.

따라서 코이카는 앞으로 국가·지역별 물 현안 속에서 기후·감염병 위기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환경·과학적인 물을 이해할 수 있는 물 분야 중기 전략을 구축해 협력 국가들에 깨끗한 물과 위생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물 관리와 물 재해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K



동티모르의 메티나로 지역 사업장 물탱크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주민들 모습



페루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 소장

점·선·면, 원헬스 그리고 난민 포용을 통한 코이카 페루 보건의료 사업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나라는 바로 잉카문명과 마추픽추로 유명한 페루이다. 페루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22만 명에 육박하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7명에 달했다. 페루를 뒤이어 불가리아(551명), 헝가리(499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498명)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들이다.

페루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전략은 '점·선·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많았던 나라들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페루에서는 아마존 지역과 같이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페루 아마존 지역 로레토주(Loreto ▶▶

Province)의 이키토스(Iquitos)라는 도시에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육로로 찾아갈 방법은 없고 비행기와 배로만 갈 수 있다. 2020년 3월 15일, 이키토스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페루 전역에 락다운(Lockdown) 조치가 실시된 이후 이키토스로 연결되는 모든 항공로와 수로는 차단됐다.

아마존 지역에는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은 열대 감염병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할 도구가 없어 사람들이 뎅기열에 걸렸는지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당시 로레토주 전체에는 중환자실 병상이 12개밖에 없고 일반 병상도 턱없이 부족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코이카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2020~2021년에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BC 프로그램)'을 통해 페루에 약 170만 달러 규모의 진단키트, 마스크, 워크스루 진단 부스 및 개인보호장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응급 환자 후송을 위해 배로 제작된 수상 앰뷸런스 5대와 차량 앰뷸런스 5대를 이키토스가 자리한 로레토주 거점 보건소와 병원에 지원하기도 했다.

보건 분야는 페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협력전략(CPS) 내 4대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이며, 이전부터 코이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중점 지원 분야이기도 하다. 코이카는 페루 보건부와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 동안 페루 중부와 북부 지역에 9개의 보건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현재 해당 의료시설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기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를 기반으로 2020년대 초부터 그 '점'들을 활용, 선·면으로 확대해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페루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원격의료·원헬스·난민 통합 추진하는 코이카

첫 번째로 코이카는 기존 코이카가 설립을 지원한 의료시설을 포함한 페루 각 지역 주요 의료시설인 '점'들을 서로 '선'으로 연결해 페루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2026년에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코이카는 기존에 설립을 지원한 의료시설을 포함한 페루 각 지역 주요 의료시설들인 '점'들을 서로 '선'으로 연결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지역과 안데스산맥 등이 있어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데다 세계에서 20번째로 광활한 영토를 가진 페루에서는 격오지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페루 보건부는 코이카와 협력을 통해 수도 리마(Lima)나 거점 도시의 상급병원들을 소외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들과 연결해 원격 모니터링, 협진, 영상판독 등이 가능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 병원들이 '선'으로 연결되면 그 '선'들로 이뤄진 '면' 위에 거주하는 각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페루 보건부 산하 기관인 통합건강보험청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심사 시스템이 환자 정보를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룰 엔진(Rule Engine)을 새롭게 도입해 보험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영우
한국국제협력단 페루사무소장

이력사항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국제개발정책학(석사)을 공부했고, 2007년 코이카에 입사한 후 2009~2012년에 아제르바이잔 주재원, 2013~2016년에 팔레스타인 주재원 등을 지냈다.

두 번째로, 코이카는 인간의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발생 빈도와 종류가 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페루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동물, 환경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라는 새로운 개념이 중요하다. 코이카는 이러한 원헬스 접근법을 통해 페루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항생제 내성(AMR)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는 월드비전(World Vision)과 협력해 '페루 아마존 지역 주민 기초 보건 증진 및 열대 감염병 경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열대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질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시설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을 보건 요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는 범미주보건기구(PAHO)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페루 내 베네수엘라 난민의 사회적 통합 지원 및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페루 내 유입된 베네수엘라 난민의 규모는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이제 난민 이슈는 페루 내 중요한 사회문제이면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코이카는 범미주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페루 5개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난민들의 건강 문제와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 및 젠더 관점을 고려해 난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 서비스 제공이 힘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동 진료

한·페 우호적 관계, 보건 분야 협력으로 강화

2023년은 우리나라가 페루와 외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남미 국가 중 페루는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페루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남미를 여행할 때 한 번은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다.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페루 사람들도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을 좋아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더 글로리〉 등의 K-드라마를 좋아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함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력하고 있는데, 페루는 작년 8월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코이카는 앞으로도 페루 발전을 돕고 우리나라와 페루 간 우호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WFK(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파견 사업도 재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 봉사단원 18명을 페루 4개 지역(카야오·피우라·이키토스·우아누코)에 파견했다. 봉사단원 18명은 2023년 4월부터 코이카가 설립한 각 지역 한·페 의료센터에서 청소년 임신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코이카가 페루에 지원한 수상앰뷸런스

코이카는 향후에도 페루가 당면한 보건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페루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 보건의료 환경을 점·선·면으로 확대해 개선하고 원헬스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또한 난민 포용과 같이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K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파리기후변화협약 같은 국제적 약속이 절실한 물 관리 분야

방글라데시 현장 조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물 관리 현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은 방글라데시의 물과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자 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필자는 출국 전에 방글라데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두 가지 경제 지표와 뉴스를 살펴봤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국가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지난 11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3.6배(2010년 USD 115.3 bil, 2021년 USD 416.3 bil), 1인당 GNI(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2배(2010년 USD 800, 2021년 USD 2,570)가 증가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방글라데시는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 2026년 최빈개도국(LDCs)에서 졸업한다는 뉴스를 접했기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물과 환경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도착한 후 주요 도시와 가내수공업 지역을 8일 동안 방문하면서 조사한 현지의 물과 환경은 열악했으며 일부 지역은 참혹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깨끗한 음용수를 구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철이나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셨고, 재래식 화장실의 처리와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많아 보였다. 물과 위생이 열악한 수준이므로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폐수는 대부분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습지나 하천 및 호소(호수와 늪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그대로 방류돼 그 폐수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인분, 가축 분뇨, 각종 오염물질이 뒤섞이면서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큰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 값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측정하거나 절약할 이유가 없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여과장치를 설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민감도도 높지 않았다. 현지를 둘러보며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가 없는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물과 환경오염도 함께 악화된다고 생각했다.

기후 위기는 물 위기라는 상황에 공감하는 국제사회

올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미국 뉴욕에서 유엔(UN) 물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1977년 아르헨티나 유엔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제77차 유엔 총회가 후원하고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이 주관했다. 2022년 10월에 열린 사전 회의의 핵심 어젠다는 SDG6(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의 혁신적 가속과 이 가속을 위한 게임체인저(Game-Changer)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이었다.

사전 회의에 앞서 많은 전문가가 거의 반세기 만에야 단일 주제로 유엔 물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과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약속이 아직 물 관리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 조약이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같은 국가 간 약속과 검증이 물 관리 분야에도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 위기라는 공감대가 전 지구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UNESCO IHP-ROK)가 유네스코와 주요 국제기구·단체와 협력해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Science-based Global Water Assessment, SGWA)'라는 주제를 이번 물 회의의 부대행사로 제안하기도 했다.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의 주요 내용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개념과 체계를 만드는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처럼 국가별 물 관리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분석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국제생물다양성협약(CBD)과 같은 기구를 신설 혹은 지정하고, 정부 대표가 모여서 물 관리 협약을 논의하고 약속할 수 있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와 같은 국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정보화와 같은 데이터에 관한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물 분야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주요 내용이다.

이번 부대행사에 참석한 10개국 장관급 고위인사, 10여 개 유엔기구 및 저명한 국제기관의 전문가들은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기후변화 및 물 관리 적응과 연계의 관점에서 본 제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이번 유엔 물 회의 중에서 2가지 주목할 제안 중 하나로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를 추천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한국환경연구원과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는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대응 및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될 대한민국

물은 대체 불가능한 순환 자원이다. 그리고 물은 순환 자원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건강한 환경 보전의 토대가 되기에 공공성과 영리성의 균형 잡힌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물 정책과 물 관리 시스템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실제로 홍수, 물 공급, 분뇨·하수·폐수 처리 등이 공공성에 기반한 양질의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기후 위기는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수질 악화를 야기해 경제, 식량, 운송, 에너지, 난민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 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무기로도 활용된다. 그러므로 유상·무상 원조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투자가 유의미한 산출물과 긍정적이고 두드러진 파급 효과로 이어지려면 그 나라의 물 관리 혁신이 지속돼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물 정책과 기술 혁신 사례는 효과적인 환경외교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K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력사항 미국 캔사스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재직하고 있다. 세계은행 글로벌 물 부서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코이카 SDGs 물 분야 전문위원과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 기획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제르바이잔 IOM 물 공급 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 사업

전통 물 공급 시스템 복원, 실향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응원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남서부에서 이란 북부까지 펼쳐진 카스피해의 연안에 자리하고 있다. 카스피해는 세계 최대의 내해로 2018년 협정 합의 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등 5개국의 영유권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곳이다.
그중 카라바흐 지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주로 거주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제정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인을 대거 이주시켜 영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영토 분쟁 이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영토 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물 부족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난민들은 농업용 수자원 부족으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난민의 물 접근권 위한 물 공급 시스템 구축

2017년 1월, 코이카는 난민위원회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전기와 연료가 필요 없는 친환경 물 공급 시스템인 카흐리즈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그해 2월 현장에 도착한 코이카는 아제르바이잔 난민위원회에서 난민들과 면담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요청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당시 난민들은 심층 지하수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지방 정부의 전력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수질도 좋지 않아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기존 물 공급 시스템인 카흐리즈는 구소련 시절에 시설물 대부분이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카흐리즈는 중앙아시아의 건조 지역과 반건조 지역에서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물 공급 시설로, 외부 에너지 없이 중력만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코이카는 우선 이번 사업이 '물 분야 중기전략(2016~2020)'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 지원은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건강 향상과도 연결되는 일이 ▶▶


아제르바이잔과 주변 국가에서 사용한 전통 물 공급 시스템인 카흐리즈

▶ 었다. 외부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과 수자원 조달 능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 일정한 훈련을 받은 관리자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리자로 선발되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수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중점 협력 분야에 물 관리 및 보건 위생과 지역개발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사업의 타당성을 높였다.

물 공급 시스템 카흐리즈 복원을 통한 물 공급량 확보 기대

아제르바이잔 20개 지역에는 1,400개의 카흐리즈가 있었으나 그중 10% 내외만 지역공동체가 복원해 이용 중이었다. 카흐리즈는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데다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취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 공급 시스템이다. 카흐리즈의 기본 구조를 보면, 우선 지하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원활한 물의 흐름과 통풍을 위해 일정 구간마다 우물 형태의 구멍을 뚫는다. 구간별 수질에 따라 먼저 식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해 활용한다.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예상 지역은 일사량, 지형, 토질 등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지만 당시 물 부족으로 상당수 토지를 방치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도 기존의 훼손된 카흐리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 목적으로만 소량 얻을 뿐이었다. 만약 카흐리즈 복원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업 예상 지역 내 토지의 물 공급량이 기존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8개 주 40개 물 공급 시스템 복원과 관리 기술 역량 함양

카흐리즈 물 공급 시스템 복원 사업은 아그담 등 8개 주에서 이루어졌다. 코이카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지역 내 40개 카흐리즈 시스템을 선정해 복원 및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카흐리즈 관개수로 보수 작업 현장

더불어 400km에 이르는 관개수로 정비와 청소를 병행하고, 사업지역 시범 농가 40곳에 농업에 필요한 점적관개 시스템(작은 관을 따라 내려가는 물을 원하는 지점에서 한 방울씩 천천히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코이카의 카흐리즈 물 공급 시스템 복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아제르바이잔 본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으로 관련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문 기술인력 부족과 복원 계획 체계 미비로 장기 사업보다는 단기 사업 위주로 수행돼왔다. 과거에는 카흐리즈 관리 기술이 마을마다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왔지만 구소련 시절 카흐리즈가 방치되면서 대다수 관리 기술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의 한계 극복에 나섰다. 먼저 카흐리즈 물 공급 시스템 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아카데미와 연계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등 카흐리즈를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사업 첫해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카흐리즈 관리 기술 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사업 대상 지역의 기초 조사를 시행했다. 대상 지역에서 얼마나 전통 물 공급 시스템인 카흐리즈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인 수요도 조사했다.

난민의 소득 증대와 카흐리즈 물 공급 시스템 확산

코이카는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창업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다. 사업과 수익 창출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로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훈련받은 수혜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면 자금도 소규모 지원했다. 카흐리즈 복원을 통한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은 궁극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고, 물사용자위원회(WUC) 구성원들에게 수자원 관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카흐리즈 시스템 정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물사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400여 명의 주민 중 30%에 해당하는 120명이 여성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깊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 지역 8,000여 가구, 3만여 명에 이르는 난민들에게 물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체의 식수 접근성과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국내외 건조 지역에서도 적정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복원된 카흐리즈를 통해 한층 원활한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춘 아제르바이잔이 새로운 활력을 키워가길 기대해본다. K



다양한 지원으로 영양상태가 크게 개선된 필리핀 아동들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 사업

나라가 발전하려면 아이들 건강부터

아동은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에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한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생후 2년 이전의 영양상태가 한 사람의 성장과정, 나아가 전 생애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필리핀에서 추진한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 사업(이하 생애초기 1000일 사업)'이 대표적이다. 코이카는 사업기간 동안 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필리핀 아동 및 임신 수유부 대상 적정 영양공급을 위해 노력했다. 아동의 영양개선을 위해 필리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양정책 환경 개선, 모성 및 영유아 대상 통합 보건과 영양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영양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삶의 질 개선과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영양결핍, 개인의 고통 넘어 국가 부담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1년에 펴낸 보고서 〈필리핀의 영양결핍〉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필리핀의 영양결핍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은 발육부진 아동이 가장 많은 세계 10개국 중 하나다. 5세 미만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 6~11개월 영아의 38%, 12~23개월 유아의 26%가 영양결핍 상태이고 산모의 20%가 빈혈을 앓고 있다.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결핍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생애 첫 1,000일 동안의 영양결핍은 신체 발달은 물론 인지와 감정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다. 영양결핍은 여러 환경적인 문제와 깊숙이 연결돼 있다. 영양결핍을 겪는 아이들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아동 학대나 방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특히 필리핀 동부 비사야스 지역의 사말과 북부 사말,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지역은 빈곤율이 국가 평균에 비해 높고 자연재해에 취약해 영양결핍을 겪는 아동들이 많다. 북부 잠보앙가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빈곤율이 51.6%에 달하고, 5세 미만 영유아 중 발육부진을 겪는 아이가 38%나 된다. 영아 사망률도 1,000명 중 27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간 국제기구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지역적으로 외지고 원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다. 코이카는 2018~2022년 사말, 북부 사말과 잠보앙가 지역을 중심으로 '생애초기 1000일 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은 유니세프(UNICEF), 필리핀 보건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지역 내 5세 이하의 소외계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 17만 7,000명에 대한 적정한 영양 공급, 필리핀 정부의 영양관리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약 6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진행했다.

정부 역량 강화로 저체중 출생아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먼저 코이카는 산전에 진찰을 받거나 전문 의료인을 통해 분만하는 산모 비율을 높이고 급성 중증영양실조 완치율과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가 보건부와 함께 제작한 교육자료를 이용해 병원 및 보건소 의료 인력과 조산사를 대상으로 산과와 신생아 치료 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코이카는 중앙·지방 정부의 영양 관련 거버넌스, 정책 환경 및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이 결과, 영양 관련 중앙정부 단위 3개 국가정책 입법을 완료하고 사업 대상 전 19개 지방정부(LGU)가 영양개선 관련 조례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영양실조(SAM)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보장하는 필리핀 보건관리공단(Philhealth) 패키지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급성영양실조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식을 제공하고 사업 대상지의 임산부와 아동에게 미량영양소 제공 및 예방접종도 실시했다.
그러자 영유아 영양상태가 현격하게 개선되는 등 사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최소 허용 식이수준을 충족하는 6~23개월 미만 영유아 비율'이 15.5%에서 18%로 높아졌고 중증영양실조 영유아 2,519명이 완치됐다. 또 영유아의 73.9%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마쳤고 산모의 62.1%가 전문가를 통해 분만했다. 저체중 출생아는 27%p 감소했다. 이밖에도 비타민 A 영양제를 제공받은 산모가 50%에서 76%로 크게 증가했고 구충제를 받은 산모도 46%에서 61%로 늘었다.

WASH 프로그램과 연계해 긍정적 효과 거둬

생애초기 1000일 사업은 직접적인 영양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했다. 특히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식수 및 위생 관련 행동변화 교육을 통해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삶을 보장하여 아동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증진했다. 결과적으로, 식수 공급원이 개선된 가구가 95%에서 97%로 증가했고 노상배변을 하는 가구는 15%에서 6%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코이카의 생애초기 1000일 사업은 단순히 영양을 개선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중점 대상국이자 2022년 기준으로 코이카 국별협력 사업 규모 2위에 해당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다.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 6%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불평등 또한 만연하다. 코이카의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 사업은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필리핀의 국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이카의 활동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이 장차 필리핀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 K



필리핀 아동들의 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코이카와 유니세프



미얀마 바간 술라마니 사원에 줄 서 있는 자원봉사자들

전범환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 단장

수원국의 역사와 문화를 수호하는 사업, 문화유산 ODA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잘 사는 것'이었다. 배고프지 않고, 아늑한 곳에서 자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관리 소홀로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한번 손상되거나 사라진 문화유산은 복원이나 복구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기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주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 국가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대부분 국가적 우선순위 때문에 문화유산 관리에 소홀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문화유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



전범환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 단장

이력사항 고고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조사연구실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ODA를 담당하는 국제교류팀장, 문화유산ODA팀장을 거쳐 2022년부터는 국제협력단에 재직하고 있다.



미얀마 바간 사원 외벽 손상 제거 작업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의 해체 작업

▶ 함께 진행하는 대부분의 수원국이 인건비 정도의 최소 예산만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전담팀을 두고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에서 최초로 문화유산 ODA 사업을 시작했다.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ODA 사업 전체 예산인 4조 7,771억 원 중 약 62억 원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사업을 통해 생산해내는 가치는 여느 ODA 사업 못지않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한때 동남아를 호령한 크메르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크메르의 건축물을 연구하고 해체·복원하며 모든 과정에 수원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를 복원하며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라오스, 캄보디아 현지 기술과 융합해 유적 복원에 적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올해 초 간다라 문화유산 연구센터를 구축해 간다라 문화유산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파키스탄의 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마르칸트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짓고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문화유산 ODA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활력을 더하고 있다. 각 나라의 모든 사업 공정을 한국의 장점인 IT 분야와 디지털 기술로 기록해 향후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우선

병원이나 학교 등을 지어 수원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반 ODA 사업과 달리 문화유산 ODA 사업은 이미 그들의 삶이고 안식처이고 종교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매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사업 간에도 수원국의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만약 문화유산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수원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문화유산 ODA 사업은 수원국 국민들의 문화와 역사, 삶을 지키고 존중하는 일이다. 동남아, 중앙아시아는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문화유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K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DR콩고의 전통 문화유산과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현대식 박물관의 탄생



코이카가 지원한 DR콩고 국립박물관 전경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은 19세기 후반 벨기에로부터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고, 당시 경제적 침탈 과정에서 여러 부족의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는 아픔을 겪었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197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인 'DR콩고 국립박물관 연구소(이하 IMNC)'가 설립됐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추진된 DR콩고의 문화 정책은 '탈서구화', '아프리카 중심주의'로 요약된다. 그런데 IMNC 설립 이후에도 전시 및 교육 목적의 공간은 별도로 없었으며,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수장고(收藏庫)의 환경도 열악했다. 이 때문에 IMNC 설립 초기에는 문화유산 보존을 구실로 많은 문화재가 IMNC에서 벨기에로 옮겨졌고, 남은 문화재들도 적절한 보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보관됐다. 2000년대에 들어 소규모 전시실이 마련되고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이후로도 DR콩고의 문화유산 관리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다.

DR콩고 국립박물관 신축을 통한 문화 ODA 사업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DR콩고 정부와 IMNC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DR콩고 정부로부터 국립박물관 건립 요청을 받고, 2012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와 DR콩고는 1963년 4월 1일 수교했으며, 2005년 3월 한국·DR콩고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2014년 7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6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업은 DR콩고 최초의 현대식 국립박물관을 신축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립박물관 신축은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박물관의 교육 담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이었다. 이는 그동안 코이카가 수행해 온 주요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문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DR콩고 국립박물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환경 분석 및 현황 조사에 나섰다. ▶▶

▶ 사업단이 선정한 5개 과제는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지원', '박물관 개관 지원', '전문가 파견', '역량 강화', '사업성과 관리'였다. 2015년 1월에는 전문가를 파견했고, 그해 5월에 마스터플랜 1차안을 제출했다. 6월에는 DR콩고 문화부와 IMNC 관리자급 초청연수를 시행했다. 2016년 4월에는 마스터플랜 2차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DR콩고 국립박물관 착공식을 열었다.

DR콩고 최초의 현대식 국립박물관 건립

코이카는 DR콩고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 건립을 지원하고자,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 전수를 병행했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시실별로 콘셉트를 정리하고, 전시 동선을 '로비→기획전시실→상설전시 1관(생활민속)→상설전시 2관(역사)' 순으로 정했다. 상설전시 1관의 경우, 생활민속을 주제로 콩고의 문화적 다양성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설전시 2관은 역사를 주제로 DR콩고의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으로 DR콩고 국립박물관의 소장 문화재 전체 목록을 정리하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시 문화재를 선정했다. 신규 박물관 전시 문화재를 확정한 다음에는, 전시 콘텐츠 작업을 통해 전시 대상 문화재 430점을 정하고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정리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DR콩고 국립미술관이 본격 개관했다. 신축 국립박물관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 1·2관, 복도 전시 및 야외 전시 등 1,433㎡ 규모로 지어졌다. 상설전시 1관(460.97㎡)은 전시실 중 가장 큰 규모로, 본 박물관을 대표하는 시설이었다. 약 175만 년 전부터 인류가 머물렀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임을 드러내고, 450여 개 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게 전시를 구성했다. 284.39㎡ 규모의 상설전시 2관은 1관과 연계된 전시로 구성했다. 콩고인들의 일생을 주제로 가면, 조각상, 장례용 물품 등 상징적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한편, 콩고인들의 공동체적 삶과 연관된 유물을 전시했다. 기획전시실에는 DR콩고 450여 개 부족의 예술작품과 함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했던 다양한 전통악기 100여 점을 소개했다.

안정적 박물관 운영 위한 체계 마련

DR콩고 국립박물관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운영 체계 개선은 필수였다. 사업단은 박물관 신축과 함께 환경 분석과 현황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시, 소장품, 교육, 조직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존 IMNC 재무 자료와 회계 시스템을 검토하고, 수익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해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한 문화 사업', '입장권 수입', '대관 사업' 등 향후 수익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DR콩고 국립박물관이 안정적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해나갈 기반이었다.

> 66
> 코이카는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과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 두 가지를 달성했다. 현대식 국립박물관 건립은 궁극적으로 DR콩고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었다.
> 99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VIP 및 실무진 초청 연수를 진행해, 우리나라 박물관 및 유관 기관의 운영, 조직, 전시, 교육, 시설관리 등을 견학하고 각종 노하우와 기술 전수에도 나섰다. 나아가 운영 지원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물 관리 매뉴얼과 보존 처리 매뉴얼,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작했다. 이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지 인력들이 원활하게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DR콩고 국립박물관에 적합한 보존 기자재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현지에서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됐던 문화재 4만 5,000여 점 가운데 1만 2,425점은 신축 박물관 개관과 함께 현대식 수장고로 이전했다. 아울러 유물 분석과 디지털화를 현지 인력과 함께 추진했다. 분석 교육을 통해 기존 유물카드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각 유물을 지역별, 재질별, 용도별, 민족별로 분류했다. 또한 목재와 섬유재 등이 대량 포함된 DR콩고 유물의 특성을 고려해 방충, 방습, 방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시했다.

박물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교육 효과 향상에도 주력했다. 먼저 현지 학예사들과 함께 오디오가이드용 유물 100여 점을 선정한 후, 자세한 유물 설명과 예화를 추가한 오디오가이드를 제작했다. 박물관 안에서 체험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박물관 마당과 회랑,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 공연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별개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이는 지리·경제적 여건 때문에 수도 중심부에 있는 신축 국립박물관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DR콩고의 소중한 유물 보존해 문화 교육에 활용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이카는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과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 두 가지를 달성했다. 현대식 국립박물관 건립은 궁극적으로 DR콩고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었다. 열악한 상태로 보관됐던 유물을 현대식 수장고로 이전해 안전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했으며, 전시실 규모 확대로 문화 교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특히 이 사업은 DR콩고 현지 인력들이 독자적으로 전시 기획과 문화재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현대식으로 탈바꿈한 DR콩고 국립박물관이 협력국 국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공간을 넘어,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보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K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는 키수무의 지역보건소(이하 사진 제공: 밀알복지재단)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 사업

케냐 극빈층 장애 아동 자립 다각도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6%가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극빈층,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더욱 소외된 계층으로 꼽힌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이 처한 가난과 질병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코이카가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한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절대 빈곤' 키수무 장애 아동에 특수·통합 교육 제공

케냐 서북부 키수무 지역은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다음으로 꼽히는 케냐의 주요 도시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역사회가 루오족 중심으로 구성돼 키쿠유족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키수무의 전체 인구 중 60%가 절대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장애 가정의 형편은 더 좋지 않다. ▶▶

키수무 지역의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 95만 9,882명의 6%에 해당하는 6만 2,740명으로, 이들의 절반가량은 국내 평균 소비지출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 또 이들이 속한 가정의 약 80%가 하루 수입이 1.9달러 이하인 국제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케냐의 충분하지 않은 사회안전망 체계와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편견 등이 더해져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은 필수적인 교육과 재활은 물론이고 또래 집단과 어울려 사회성을 형성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코이카는 키수무 범 지역사회 차원의 장애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장애 아동 및 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실시했다. 1단계는 2017~2018년에, 2단계는 2019~2021년에 실시해 총 65개 가정을 지원했다. 두 단계에 걸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장애 아동의 건강 및 교육권 향상, 지역주민의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역량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농업·양계로 소득 창출 양육 가정 경제 자립 강화

이 사업의 세부 성과로는 우선 장애 아동의 교육권 향상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장애 아동 중 41명이 학교에 등록해 제도권 내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2021년 평균 출석률이 88.16%로 증가했다. 이는 키수무 지역 학생 평균 출석률인 88~90%에 이르는 수치다. 또 화장실 등 학교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장애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활동보조인 운영을 통해서는 장애 가정의 지역주민의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코이카는 여성 주민 23명을 장애 아동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으로 선발해 장애 아동에게 주 3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장애 아동들은 재활 훈련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을 통해 가정에서 의료기관 수준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활동보조인을 운영할수록 장애 아동에 대한 마을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었고, 마을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조 그룹을 조직해 활동하는 등 마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 보호자들은 활동보조인 덕분에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장애 아동을 가진 여성 보호자들은 케냐 농축산연구소 키수무지사의 농·양계 전문가들로부터 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아 공동작업장과 개별 가정 내 사업장에서 작물을 재배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주 재배 작물은 케냐의 주식인 옥수수로 각 가정이 식량 확보와 함께 잉여 수확물 판매를 통해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갔다. 2021년에 48개 가정에서 약 6,890만㎡ 규모의 경작지를 개간하고 8,570㎏에 달하는 수확량을 기록했다. 양계 사업의 경우 2021년 하반기 41개 가정에서 2만 8,090개의 달걀을 생산, 이 중 2만 600개를 판매해 약 2,055달러의 소득을 창출했다. 또한 코이카는 이들 가정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지원했다.

2024년까지 장애 아동 지원 사업 계속돼

코이카의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2단계 사업 종료 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케냐 키수무주 니얀도 지역 장애 아동 사회통합 지원 사업'은 2024년 말까지 총 9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코이카 케냐 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옹호 조직 확대를 통해 장애 아동의 중장기적 사회통합을 지원하게 된다"며 "장애 아동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 아동 가정의 사회적 지지 강화를 목표로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키수무 지역 내 장애 아 ▶▶

케냐 키수무 지역 장애 아동과 가정의 자립 지원사업 1단계와 2단계의 특징 및 차별점

구분	1단계 사업(2017-2018)	2단계 사업(2019-2021)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의 기초적 건강 증진	장애 아동의 기초적 건강 증진
지역주민	비 장애 주민 개인의 장애인식 개선	비 장애 주민 개인의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아동 가정	장애 가정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립 욕구 증가	장애 가정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립 욕구 증가
방향성	장애 아동 가정의 결핍 보완 및 교육 / 지역 내 장애 가정의 자립 기반 확보	장애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접근성) / 장애 가정의 소득증대 → 경제적 자립 증진

동 교육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장애 통합 교육 커리큘럼 TF팀'을 구성하고 2개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 참여, 보완된 장애 통합 교육 커리큘럼을 시범 운영했다. 교사 대상의 역량 강화 교육 또한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4차례 교육을 통해 총 88명의 공립학교 교사가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역량을 높였다.

교실, 화장실 등 장애 친화적 인프라 개보수 지원

장애 아동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립학교 내 2개 특수학급과 화장실을 새로 짓는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쓴다. 장애인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화장실 등 장애 친화적인 시공을 통해 장애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도 2개 학교를 추가 선정, 장애 친화적 인프라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 재활치료 시설을 갖춘 주립병원과의 먼 거리를 감안, 사업 지역 내에 재활치료실을 구축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보건소, 병원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3개 재활치료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치료가 시급한 장애 아동 중 66명을 선발해 체계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의 경우 확장·보수하는 등 치료 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여기에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가 재활치료사를 직접 고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케냐 보건부가 고용 인계를 통한 재활치료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재활치료 외에도 보장구(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와 의약품,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44명의 장애 아동이 보장구를 지원받았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장애 아동 3명을 선발, 신경근 장애로 인해 수축된 근육을 완화하고 관절 작동 범위를 넓히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장애 아동 발굴, 장애 진단 및 등록을 위한 장애 아동 현황 조사

장애 아동 현황 조사 또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코이카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아동을 발굴, 장애 진단 및 등록을 시행 중이다. 이는 케냐 정부 당국을 상대로 장애 아동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중장기 장애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15명의 아동이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 중 202명이 장애인으로 판정됐다. 코이카는 올해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발굴된 장애 아동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부모 대상 교육 등 다각도 인식 개선 캠페인도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선 장애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종사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 통합 지역사회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건을 교육부, 사회보장부 등 장애 관련 5개 정부 기관에 제출, 안건에 대한 피드백과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가정과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부모 교육에도 공을 들인다. 코이카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83명의 장애 아동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밀알복지재단 케냐지부 직원을 비롯해 관계 부처 공무원과 재활치료사 등이 강사로 나서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및 건강 관리, 정부 지원책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코이카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장애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 교육하는 등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지원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K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자 1993년에 설립됐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 전문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국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며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수기

코이카와 나, 어쩌면 필연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의 소셜미디어에서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 모집'. 게시물에는 언젠가 꼭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도전할 거란 친구의 멘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늘 남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도전을 즐기는 멋진 친구였는데, 그 게시물을 본 뒤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꿈에 그리던 국제 방송 기자로 입사해 일에 한창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내 긴 인생 중 일부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해외봉사단 모집공고에서 '신문/방송' 직종을 발견한 뒤로는 '나와 코이카의 인연이 앞으로 꽤나 깊어지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해외봉사에 가서는 우물만 판다고요?

"꼭 지금 가야 하니?"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을 왜 가니?"

해외봉사 경험이 있다면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시간들은 이런 우려와 정반대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과 커리어에 잠시 쉼표를 찍으러 간다고 생각하며 봉사를 떠났지만 봉사 기간이 끝난 지금, 한 사람이자 코이카 단원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코이카 단원으로서 볼리비아 내 월드비전의 커뮤니케이션 팀에 파견돼 다양한 이벤트를 취재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외봉사 가면 우물 파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 섞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코이카는 봉사단원을 직종별로 파견하기 때문에 저는 일 년간 한국에서 좋아했던 일을 볼리비아에서도 이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교사, 간호사, 관광통역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던 동기 단원들도 한국에서 쏟은 열정을 볼리비아의 초등학교, 병원, 관광청 등에서 색다르게 발휘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일들이,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낯선 타국 땅에서는 모든 게 흥미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된 방송기자

볼리비아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이카의 볼리비아 현장 사업에 참여해 볼리비아가 가진 다양한 문화 속에 가려진 공통적인 결핍과 도움의 필요성을 알리고 월드비전의 활동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것입니다. 국내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볼리비아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안을 짜고 업체를 찾아가서 흥정까지 하려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순간마다 코이카 사무소 직원분들이 든든한 소방관처럼 출동해주셨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동료 둘이 갑자기 퇴사했을 때 코이카 사무소 직원분들이 곧장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담당자를 요청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기억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이카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최근 다큐멘터리 〈Waway: Semilla de esperanza(아이들: 희망의 씨앗)〉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볼리비아 내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취재에 대한 열망과 짧지만 방송기자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고 싶다는 호기로움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코이카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다양한 월드비전 지부에 공유돼 볼리비아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쓰일 예정입니다.

언젠가 다시 달 '코이카 봉사단원' 이름표

이제 출국을 앞둔 시점, 귀국하면 지난 일 년간 내려놨던 제가 사랑하는 일과 일상을 다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지난 일 년의 경험을 하기 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취재를 하더라도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을 폭넓게 고려할 줄 아는 따뜻함이 있는 기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이자 꿈입니다. 추후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연륜이 쌓이고, 지금과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가 온다면 다시 한 번 코이카 단원의 이름표를 달고 세계 어딘가로 떠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단원분들, 그리고 앞으로 멋진 결심을 하게 될 수많은 미래의 단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K



김성민
코이카 해외봉사단 149기

이력사항 한양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2019년에 아리랑 국제방송에 입사해서 경제부 기자로 활약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신문/방송 봉사단원으로 볼리비아에 다녀왔다.

‘지속가능한 미래’ 공유하는 ODA 랜드마크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



개발협력전시관 내 기획전시관의 모습

국내 유일의 개발협력전시관이 탄생했다.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 문을 연 개발협력전시관은 코이카가 선도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의미 및 방향과 함께 빈곤, 기후위기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개발협력전시관이다. 글로벌 이슈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이 전시관은 특히 코이카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전시관은 크게 관람이 시작되는 프롤로그 공간,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미디어체험관, 에필로그 공간으로 구분된다. 관람객은 전시관을 둘러보며 코이카의 다양한 활동 성과와 함께 코이카의 중점 분야와 연계된 글로벌 가치(국제개발협력·ODA·SDGs)의 중요성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오다(ODA)’로 ▶개발협력 당면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와 한국의 발자취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코이카의 노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SDGs 연계 기획전시는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SDGs 13)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결 방법들을 소개한다.

개발협력전시관은 디지털 연출 기법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미디어아트, QR코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흥미 요소를 높이고, 참여·체험형 전시 기법과 연결해서 관람객이 전시 내용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를 알아보고 환경 문제를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잡(job) 아라!’와 2~5인 가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미리 본 미래,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은 월~토요일(토요일은 둘째·넷째 주만 운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 관람, 도슨트, 교육·체험 프로그램 모두 네이버 예약 플랫폼(booking.naver.com/booking/12/bizes/383742)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도슨트와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고, 전시 관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인 이상이 단체 관람을 계획하는 경우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대표 번호(031-777-2646)로 문의하면 된다. K



상설전시관(위)과 에필로그 공간

한눈에 보는 사업 실적

2017~2021년 코이카의 지원 규모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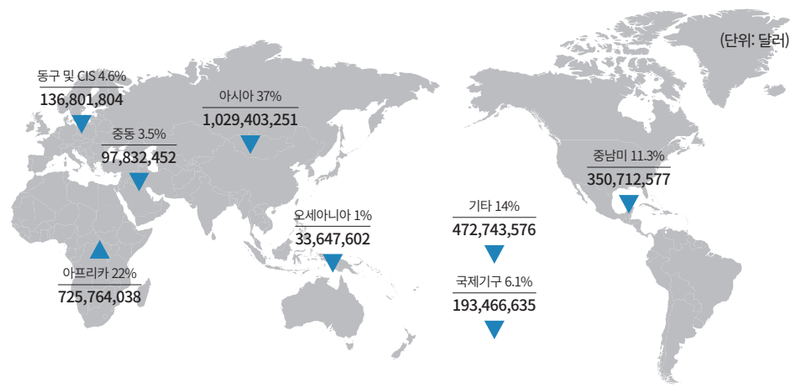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앞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ODA 사업 1,978개에 대한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늘어난 6조 8,421억 원으로 의결됐다. 코이카는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앞으로 더욱 주도적인 선진국형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코이카가 전개한 ODA 사업의 규모와 성과를 종합한 데이터이다.

지역별 지원 규모

5년간(2017~2021) 전체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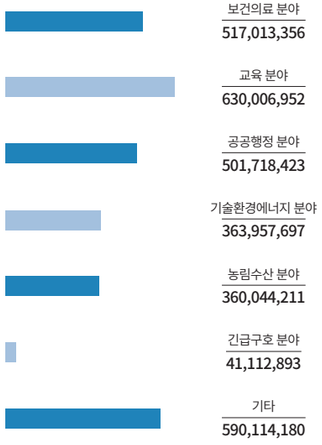
3,040,371,935달러

-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분류. 다국 지원 제외
- 기타에는 국가 배분이 불가능한 다국가 사업, 행정성 경비 및 개발인식 증진비, 긴급구호 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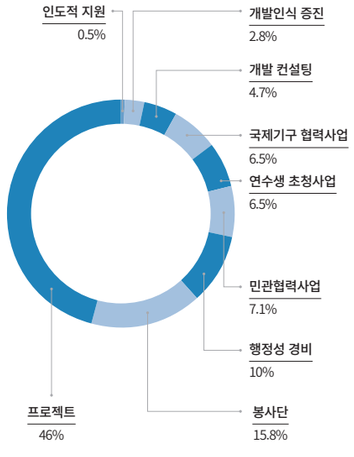
분야별 지원 규모

(단위: 달러)



- 기타는 코이카 5대 분야(교육·보건의료·공공행정·기술환경에너지·농림수산) 및 긴급구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행정 비용, 개발인식 증진 비용, 난민지원, 비특정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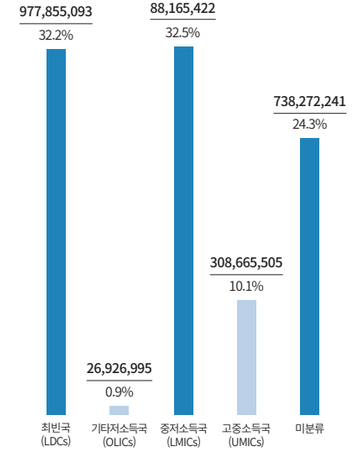
유형별 지원액 누계 비율



- 봉사단은 일반 해외봉사단, 협력요원, 협력의사, NGO 봉사단, WFK-과학기술지원단, WFK-청년봉사단, WFK-대한민국 IT 봉사단, WFK-중장기자문단, WFK-퇴직전문가, 글로벌 협력 의료진 포함

소득수준별 지원 규모

(단위: 달러)



- 미분류는 국가배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액과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 증진비 등을 포함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FEBRUARY



필리핀 모자의 건강과 행복 위한 '1000일 프로젝트'

지난해 12월 7일, 코이카가 2018년부터 5년간 진행한 '필리핀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했다. 필리핀은 보건 분야의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망 원인 중 50% 이상이 영양부족일 만큼 영양 및 건강 지표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이에 코이카는 사업기간 동안 유니세프 및 필리핀 보건부와 사말 등 사업지역 내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생애초기 1000일 영양 관련 정책 개발 ▶영양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가족, 여성, 영유아 건강 관련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종료보고회는 이규호 주필리핀 대한민국 총영사, Azucena Dayanghirang 필리핀 보건부 차관보, Behzad Noubary 유니세프 필리핀 부대표 등 주요 이해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5년간의 사업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세네갈 정치 투명성 높이고 질환 감염률 낮춰

코이카가 지난 2월 2일 세네갈 다카르 국회에서 세네갈 정부와 '국회의정활동시스템 현대화사업' 및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의 협의의사록(RD)을 체결했다.

국회의정활동시스템 현대화사업은 세네갈 국회의 노후화된 기자재와 내부 시스템 등을 현대화해 국회의 업무 효율성과 정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세네갈 국민들의 국회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네갈과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한국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은 세네갈의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과 국가 보건 안보 수준을 강화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세네갈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중보건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코이카는 농업, 보건, 교육,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네갈의 국가개발계획 달성과 2035년까지 중간소득국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정활동시스템 현대화사업과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은 각각 거버넌스 분야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스리랑카 코로나19 피해 지역 살리기' 착수보고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1월 30일, 콜롬보 내 UN 컴파운드에서 '스리랑카 중부주·우바주 코로나19 피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의 중부주와 우바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민들이 안전한 물 접근성 악화 및 주변 환경 오염, 지역 전반의 경제 침체와 같은 곤경에 처한 지역으로, 코이카는 2025년까지 600만 달러를 투입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농업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코이카 스리랑카 사무소 김명진 소장, 스리랑카 행정안전부 Rohitha Uduwawala 차관보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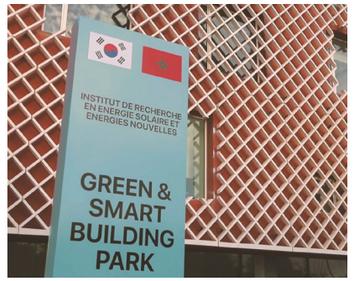
MARCH



'해외 ODA 시장 진출을 더 쉽게'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3월 7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3년 개발협력사업 참여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코이카는 해외 진출 초기 진입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원조 사업 참여 방안과 최신 원조 동향 등을 소개했다. 해외기관의 조달 정보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코이카는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에 입찰 정보 제공, 조달 컨설팅과 교육,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해외 ODA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 지원으로 5개 기업이 9개 계약(71만 달러 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모로코 녹색기술 연구 시설 개소

코이카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각)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중서부 사막지대 벤게리에서 그린·스마트 빌딩 파크(GSBP: Green and Smart Building Park, 이하 GSBP) 내 연구 시설의 개소식을 가졌다.

GSBP는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 대표 연구 단지로 코이카가 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설립한 곳이다. 이날 개소한 연구 시설은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증가하기 위한 녹색기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2017년부터 시행한 '모로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시설 설립과 녹색기술 연구를 위한 최첨단 연구 기자재 지원 ▶한국·모로코 공동 연구 추진 ▶모로코 연구진 대상 한국 초청 연수 등 맞춤형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 및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더 편리해진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

코이카의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이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새 단장했다. 2021년에 문을 연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은 ▶ODA 정보 ▶사업 정보 ▶인사와 경영 정보 ▶현장 정보 등 협력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코이카는 지난해 고도화 작업을 착수해 포털 효율적 설계, 지식 서비스 채널 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 예를 들어 여러 채널을 흩수 통합해 다양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게 했고 키워드 검색 상세화, 나라별 데이터 서비스 범위 확대의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탄자니아 최초 국립공원 미디어 홍보관 열다

팬데믹 여파로 침체됐던 탄자니아 관광산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이카가 지난 3월 10일(현지시각)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탄자니아 최초의 국립공원 미디어 홍보관인 '세렝게티 국립공원 홍보관'의 개소식을 열었다. 이 홍보관은 ▶대규모 영상 상영관(2D·3D) ▶개인용 시청각실 ▶기획전시관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 이 시설을 통해 관광객은 탄자니아 21개 국립공원의 야생 환경, 야생동물, 국립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게 된다. 탄자니아는 총 GDP(국내총생산)의 17% 이상, 외화 수입의 25% 이상을 관광산업에서 얻고 있는 만큼 이번 홍보관 개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에 참고막 생산 시설 준공, 중국 등 수출

코이카가 지난 3월 16일(현지시각) 필리핀 중부 아클란주 칼리보에서 참고막 치패(새끼) 종묘장과 수산 가공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이 시설들은 코이카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인연 맺은 국내 무역업체들과 2026년까지 33억 원을 투입하는 필리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곳은 매년 치패 4,000마리를 생산·가공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무역업체는 한국과 중국 등 안정적인 참고막 해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필리핀의 해당 지역 어민들은 한국, 중국 등 참고막의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 어민 400여 명의 소득이 약 180%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이카는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이곳 어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PRIL



차량앰뷸런스로 아마존 지역 주민 치료 서두른다

페루의 소외된 아마존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이카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페루 아마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 및 응급 의료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로레토주에 대한 차량앰뷸런스 5대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아마존 지역에 속하는 로레토주는 페루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3개의 강과 밀림으로 둘러싸여 그동안 보건 환경이 취약한 곳으로 손꼽혀왔다. 지원되는 차량앰뷸런스는 이 지역 보건소와 SAMU*에 보급돼 열대 감염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코이카는 지난해에도 로레토 지역에 5대의 수상앰뷸런스를 지원한 바 있다.

* SAMU(Sistema de Atención Móvil de Urgencia / The Mobile Emergency Care System)는 페루 보건부 산하 시설로 우리나라의 119안전센터와 같이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해 긴급조치 및 병원 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 개최

코이카가 지난 4월 18일 민간기업, 국내 금융사 및 투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혼합금융사업은 민간 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이카가 2022년에 신설한 기업협력 모델이다. 코이카는 이날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ODA 사업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고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SK임업 등 대기업의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데이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ODA 사업에 민간의 재원,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술을 배가하는 혼합금융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 및 투자사 대상 혼합금융 심화 미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석 기업 및 관계자들과 혼합금융사업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재 혼합금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와 잠재 파트너인 국내 금융사 및 투자사를 초청해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코이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국가에서 150개의 기업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 4개 기업이 ESG와 혼합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협약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코이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분야의 ESG 활동을 선도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코이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하게 된다. 최우선 인계 물품은 개발도상국 연구생 숙소와 코로나19 감염자의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된 코이카 연수센터 객실의 노후 가전제품 약 1,000점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이를 수거해 회수 및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폐기되는 전자제품 발생량에 비례해 연말에 기부금을 산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ODA 사업 성과 극대화가 목표,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 개최

코이카는 지난 4월 18일 디지털 혁신주간의 일환으로 코이카 본부에서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21년에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코이카는 이날 행사에서 ▶업무 자동화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데이터 활용도 증대 등 4대 핵심 추진 방향이 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이카 디지털 전환의 최근 대표적인 성과로는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이 포털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에 분산됐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놓아 누구나 개발도상국 일반 현황과 해당 국가에 대한 코이카 지원 현황, 유엔(UN)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개발지표 데이터를 국문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스 친선병원, 강화된 인프라로 스리랑카 모자보건 견인

한·스 친선병원이 마타리 지역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와 신생아과를 품으며 명실공히 지역 대표 모자보건 의료기관으로 거듭났다. 지난 3월 31일, 한·스 친선병원이 스리랑카 정부 주요 인사와 코이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개원식(증축 및 전담 이관)을 개최했다. 한·스 친선병원은 2004년에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코이카가 2013년에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이곳은 그동안 마타리 지역의 모자보건에 힘써왔지만, 고위험 산모 및 저체중 신생아 치료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마타리 종합병원이 줄곧 전담해왔다. 그러던 중 마타리 종합병원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코이카가 이곳의 산부인과와 신생아과를 한·스 친선병원으로 이전하는 '스리랑카 마타라시 모자보건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을 결정, 2016년에 착수했다. 9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사업은 병동 증축, 기존 시설 개보수,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진행됐다. 새롭게 문을 연 한·스 친선병원은 앞으로 마타리 지역을 대표하는 모자보건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스 친선병원이 마타라 지역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내 고위험 산모의 모성사망 감소와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스리랑카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다나(Mahinda Yapa Abeywardana) 국회의장은 이번 사업을 지원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스 친선병원을 통해 스리랑카 마타리 지역의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MAY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KOICA-미국평화봉사단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코이카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과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미 양국의 현장 중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먼저 4월 25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개발원조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를 함께 높이자는 취지의 인적 교류 및 지식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에는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과 태평양 지역 및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에 둔 공통의 협력 방안 강구 및 정보와 기술 자원에 대한 개방적인 정보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평화봉사단과의 양해각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세계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토머스 펭 미국 평화봉사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뿐 아니라 양국 간의 오랜 협력 역사를 기념하고,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파라과이판 EBS 교육 방송 송출

코이카가 지난 4월 3일부터 파라과이에서 중등학교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방송했다. 파라과이는 학교 교무실에 공용교과서 1부를 배치하고 학생들은 칠판 판서 교육에만 의지할 만큼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에 코이카는 한국의 EBS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TV를 통해 방송해 파라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육 품질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코이카는 올해를 시범 방송 기간으로 보고 1학기(4~7월)에는 수학, 국어와 EBS 등에서 수입한 외부 콘텐츠를 함께 방송한다. 2학기부터는 국어, 과라니어, 수학, 사회, 과학 총 5개 과목을 파라과이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 방송한다. 교육 콘텐츠는 파라과이 교원들이 원고부터 교안, 촬영까지 모두 참여해 제작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1·2·3단계로 나눠 3,300개 이상의 콘텐츠를 개발해 파라과이 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부문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행정안전부가 570여 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코이카가 94.5점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평균인 72.9점을 훌쩍 넘는 점수다. 이로써 코이카는 2019년 첫 우수기관 선정 이후 4년 연속 최상위등급의 영예를 안게 됐다. 코이카는 매년 10종 이상의 개발협력 분야 맞춤형 데이터를 신규 개방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누적 80종의 개발협력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코이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도 최상위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대전 지역 ODA 거점 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

대전 지역 ODA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 코이카는 지난 5월 11일 대전광역시와 한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을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가졌다.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거점대학과 힘을 모아 설립한 열 번째 센터다. 이곳은 앞으로 대전의 국제개발협력 저변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의 ODA 사업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 센터를 통해 대전시의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 의지를 갖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JUNE



우즈벡 유망 스타트업, 여기 모여라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 우수 스타트업 발굴에 힘을 보탠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견인할 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가 지난 6월 3일 문을 열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자리한 스타트업지원센터는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 행사, 투자 자금 매칭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곳이다. 앞으로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내 스타트업 발굴과 양성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를 아우르는 고도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 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창업 환경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이카는 2020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스타트업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했다.



USAID와 태평양 지역 보건·환경·신재생 분야 협력 강화

코이카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태평양 지역 주요 개발 현안인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이카 피지사무소에서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의 태평양도서국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의 우선순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태평양도서국 내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 시스템 향상 ▶자연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는 물론 디지털 전환, 젠더, 인권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이카는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시스템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재난대피센터 건립, 국립재활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약 8,6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혈액센터 건립해 탄자니아 여성 의료 접근성 높였다

코이카가 지난 6월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주에 중앙권역 혈액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현지 정부에 이양했다. 혈액센터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과 성분수혈(혈액의 특정 성분만을 분리해 하는 수혈)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센터 건립은 특히 현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응급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혈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친 위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동안 도도마주에는 혈액센터가 없어 임산부들이 시의적절한 수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코이카가 2019년부터 도도마 지역에 중앙권역 혈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앙권역 혈액센터는 700㎡의 규모로, 채혈·헌혈을 위한 공간과 안정적인 혈액보관시설, 혈액성분제제 제조기기, 성분헌혈기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에는 코이카를 통해 한국에서 보건의료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의료진 35명도 근무할 예정이다.



몽골 국과수, 한국 과학기술 전수받는다

코이카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의 3개 법과학 분야(법유전자과·법마약과·디지털분석과) 감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지원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크게 유행하고 DNA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몽골은 신종 마약에 대한 감정 능력이 전무할 만큼 과학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코이카가 세계적인 수준의 법과학 역량을 보유한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020년부터 총 700만 달러 규모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의 성과로 지난 6월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내 법과학 감정시설에서는 코이카에서 2020~2022년 각 분야별 감정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과학수사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 외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도 범죄수사·치안 분야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WFK KOICA-일반봉사단의 동티모르 현지 활동 사진입니다

더 나은 나를 만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만납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찾아온 것은
협력국과 함께 번영하는 길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보건의료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협력국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협력국 주민이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등록일자 | 2023년 8월 7일
발간등록번호 | 홍보 2023-01-295
발행일 | 2023년 8월 16일

발행처 |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 1588-0434
팩스 | 031-740-0260
홈페이지 | **www.koica.go.kr**

기획·편집 |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VOL.3 2023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3-01-295